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Designers of Modern Linguistics in Korea



2025년 10월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언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염음

소개

여기에 수록된 대담 자료는 한국언어학회가 2021년~2022년에 추진한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 성과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현대언어학을 이끌어 온 원로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언어학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한국언어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국 현대언어학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원로 교수님과의 대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한국언어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inguistics.or.kr/php/menu_05.php#section53) (아래 QR 코드 참고).



서문

한국언어학회(Linguistic Society of Korea)는 1975년 10월 초 67명의 모임을 가진 후 10월 25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회 연례학술대회 이튿날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학회지 『언어(Korean Journal of Linguistics)』와 소식지(Newsletter)를 발간하고 언어 연구회를 필두로 하여 여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내에 본격적인 생성문법 연구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어학계는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로 저변이 확대되어 언어학 여러 하위 분야들의 독자적인 학회들도 설립되어 명실상부한 한국 언어학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 언어학의 이론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가 생성되기도 하고 인접분야와의 융합연구로 그 어느 때보다 언어학의 학문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문적 발전을 맞이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우수한 연구와 저변확대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연구의 초석을 놓으신 초기의 여러 선배 학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국언어학회가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원로 교수님들과의 대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이 대담은 한국언어학의 토대를 되돌아 보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한국언어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있던 대담을 글로 채록하여 정리하여 많은 분들이 활자로도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초대 회장님이신 고 장석진 교수님의 대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최재웅 교수님에 이르기까지 현대 언어학을 이끌어 오신 교수님분들과의 대담을 통해 언어학 각 분야 연구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현재의 언어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 많은 후학들에게 한국언어학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뿌리찾기 작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신 이민행 전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언어학회 50주년을 맞아 전체를 합본으로 기획하신 이한정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장님과 모든 대담을 정리하고 합본해 주신 이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언어학회 회장 신효필

차례

장석진 교수와의 대화 (『언어』 46-2)	1
김진우 교수와의 대화 (『언어』 46-3)	11
이기용 교수와의 대화 (『언어』 46-4)	21
이홍배 교수와의 대화 (『언어』 47-1)	35
박병수 교수와의 대화 (『언어』 47-2)	48
이익환 교수와의 대화 (『언어』 47-3)	64
홍재성 교수와의 대화 (『언어』 47-4)	74
이정민 교수와의 대화 (『언어』 48-1)	88
최재웅 교수와의 대화 (『언어』 48-2)	101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장석진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김종복 교수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jongbok@khu.ac.kr

장석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1948~1955)와 대학원(1955~1958)에서 영어학을 수학하시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1962~1964)와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967~1972)에서 언어학으로 각각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서울대에서 40여 년(1958-1999)간 영어와 언어학을 가르치셨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1994~)이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1998~)이시며, 미국언어학회의 명예회원(2006~)이시기도 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생성문법 틀에서의 화행(speech act), 화맥(context) 등 화용(pragmatics) 분야이며, 특히 화용양상 자질(feature)을 도입한 제약기반 통합문법(Constraint-based Unified Grammar)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계시다.

김종복: 먼저 한국언어학회에서 준비하는 한국 언어학 뿌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리사업은 한국의 현대 언어학을 이끌어 온 한국언어학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언어학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 언어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여러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시고 학회 초대 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의 초석을 놓으신 장석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청소년 혹은 대학 생활 이야기부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인문학에 매료된 시기와 그 계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석진: 저의 청소년 시절은 소학교, 중학교 10년을 일본 통치하에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되고 일본어 일색으로 교육받은 시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자 그 다음 해 봄 방학에 졸업반이었던 4명이 대학 시험을 치르려고 고향인 황해도 해주를 떠났었습니다. 38선을 넘어 월남하여 서울에서 두 달 입시 준비를 하고, 경성대학 예과(새로 개교된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예과)에 입학했습니다. 예과 과정이 2년인데 학생들의 국립서울대학교 안 반대 시위로 첫 해 강의가 제대로 안 되었고, 예과를 수료하고 문리대 영문과를 선택했어요. 예과 과정 2년 동안에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문학 전집을 즐겨 읽으면서 인문학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종복: 교수님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쳐 영어학/언어학 분야로 국내에서 학부 및 석사과정을 수학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영어학/언어학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 당시 영어학/언어학 분야에 접하시게 된 경험이나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진: 1948년에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에 진학을 했지만 영문학의 소설이나 시, 연극 등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주 동중의 선배이면서, 해방 후 모교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신 조성식 선생님이 월남하여 문리대 예과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조성식 교수님의 『고등영문법』 책이 나오게 되었고, 제가 그 책의 색인을 만들고 교정 일을 도왔습니다. 2학년 때에는 충무로에 있는 국제출판사에서 시간제로 일을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영문과 권중휘 교수님의 『고등영문법』 책이 조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에 권 교수님의 강의 <고등영문법>을 수강했고, 이렇게 해서 영문법에 친숙해졌습니다. 3학년이 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 미24사단의 특무대(CIC) 통역으로 2년 반 남짓 종군했어요. 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된 후 서울대에 복학하여 1955년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사 학위논문을 써야 졸업이 가능했는데 조성식 선생님으로부터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Fries의 『Structure of English』(1952)를 빌려 그 내용을 소개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 권중휘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며, 학문의 길을 제 진로로 정했습니다. 학부 졸업을 한 그 해에 덕수상업고 등학교 야간 영어교사로 정식 취직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주간에 대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영문과에서 무급 조교 일도 했습니다. 1958년에 석사 논문으로 Chaucer의 Canterbury Tales에 나오는 Romance 계통 어휘를 검색하는 논문을

쳤는데, 이를 위해서 13권으로 된 OED(Oxford English Dictionary) 사전을 거액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그 해에 권 선생님의 배려로 서울대 공대에 영어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신설된 서울대 치의예과에도 강사로 나갔습니다. 그 외에 고려대, 중앙대에서도 시간강사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를 다 합쳐 한 주에 40여 시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60년에 서울대 상과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했습니다.

김종복: 교수님께서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1960년대 초중반에 걸쳐 하와이 대학교에서도 석사과정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석진: 1960년에 서울대 상과대학에 전임이 되어 교양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 해에 미국의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EWC)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62년 여름 하와이대에 입학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와, 미국 내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려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2년간 하와이대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학생에게는 숙소와 식사 제공 외에 월 180달러의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EWC 석사과정은 1년이 지난 다음, 여름 학기와 그 다음 학기를 미국 본토 대학에서 수학하여 거기에서 취득한 학점을 하와이대로 이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963년 여름 학기를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그 해의 미국언어학회 하계대학(Summer Linguistic Institute)에서 공부하고, 가을 학기는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공부하기로 신청했습니다. 워싱턴대에서 Sledd 교수의 <English Structure> 강좌와 Martin 교수의 <Japanese Structure> 강좌를 수강하고, 조지타운 대에서는 Dingwall 교수의 심리언어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2월 하와이로 돌아와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문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2년 대학원 과정은 아무 부담 없이 책을 읽고 예습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대 첫 학기에 힘들었던 과목이 지금도 자주 떠오릅니다. <Teaching English Composition>이라는 필수 강좌가 있었는데, 우리 반 20명을 둘로 나누어 제가 속한 Brosnan 교수 반은 주 3일 월수금 강의인데 『Writer's Guide』라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금요일에 작문 숙제를 받아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하고, 수요일에 교수가 검정한 것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작문주제는 자유였고, 분량은 처음에는 500자, 후에는 1000자, 1500자로 증가했는데, 영문의 문체(style)는 일반(general), 문어(formal), 구어(informal)에서 하나를 지정받았어요. 동일한 작문을 다음 번에는 다른 문체로 바꾸어 쓰게 하고 예를 들어, 일반에서 문어로; 일반에서 구어로), 마지막 시간에는 교실에서 한 시간 내에 정해진 주제로 작문했어요. 이런 방식은 다른 미국 학생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말이 되면 작문 숙제를 하느라 주말 아닌 주말을 보냈어요.

김종복: 석사학위 마치시고,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 중에 특별한 경험이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석진: 서울대에는 문리대 운동장 뒤에 본부 부속기관인 어학연구소가 있었는데 하와이에서 돌아온 다음 해에 어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언어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60년대에 부상한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을 공부할 수 있는 미국의 몇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더니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입학허가와 연 3,000달러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통지를 받고 1967년 가을학기에 일리노이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때에 조교수로 부임한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MIT에서 박사후연구원을 한) 음성학 전공인 김진우 교수를 만나 지도교수로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한 학기를 일리노이대와의 교환프로그램에 따라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으로 알려진 McCawley 교수의 강의를 들었고 후에 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일리노이대에서 2년 장학금을 받고, 학점도 모두 취득하고, 학위논문만 남은 ABD(All But Dissertation) 때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 국방대학(Defense Language Institute)이 한국어교재를 편찬하는 프로젝트를 유타주 Provo에 있는 몰몬교의 본산인 브리검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의 선교연구기관 Bonnerville 연구소에서 입찰을 통해 따냈어요. 이를 위해 미시간 주립 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송석중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한국어교재 편찬팀이 구성되었고, 나도 이에 참여하여 Provo로 갔어요. Provo에서 브리검영대에 유학 온 대학원생 5~6명의 도움을 받아가며 한국어교재 편찬 일을 했고, 10개월 기한으로 월 1,200달러라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 6월 교재편찬 일은 끝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라 박사학위 논문 연구에는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거기서 평생의 동반자가 된 사람을 만난 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는 3년 후에 서울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해 여름 한 달을 Buffalo의 뉴욕 대학교에서 열린 미국언어학회의 하계대학에서 보내고 가을에 뉴저지에 가서 Rutgers 대학교 근처에 머물며 논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 1월 일리노이대로 돌아가 논문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Aspects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를 마무리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 5년 만에 귀국하여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김종복: 교수님께서는 해외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시고 국내로 돌아오셔서, 국내에서 언어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데 대단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어학연구』를 창간하셨는데, 그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석진: 1972년 여름에 어학연구소로 복직하여 연구부장직을 맡았습니다. 훈련부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반이 생기고 전임으로 국문과 출신 고영근 교수가 들어오고, 영문과 출신으로 미국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준학, 박남식, 이정민 교수가 전임으로 참여했습니다. 1965년에 창간된 『어학연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생성문법계 학술지이고, 이 밖에 『언어교육』도 발간했습니다. 연례행사의 하나로 어학연구회도 정착되고, 지방 국립대학(대전, 부산, 광주, 전주 등)에도 어학 연구소가 설립되었어요.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 영문과에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박병수 교수(경희대), 김태옥 교수(서강대), 이홍배 교수(육사) 및 이기용 교수(전북대) 등입니다. 『어학연구』지 창간호 별권으로 이홍배 교수의 변형문법 계열 석사 논문(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이 출간되기도 하였고, 저의 일리노이대 박사학위 논문도 『어학연구』 9권 별권으로 1973년에 나왔습니다.

김종복: 그 당시 미국의 언어학 연구와 국내의 언어학 연구에 대해 비교를 하신다면 어떠한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석진: 국내에서의 언어학 연구는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학회나 대학 학과 차원에서의 연구는 미미했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재래식인 역사비교언어학을 많이 했습니다.

김종복: 연결된 질문으로, 귀국 후 1975년에 창립된 한국언어학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국내 언어학 분야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 당시 어떠한 목표를 지니시고 이러한 기여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시게 된 계기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진: 1975년 봄에 서울대가 관악으로 옮겨가면서 서울대 내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교양과정부와 어학연구소의 전임교수들이 인문대, 사범대의 연관 전공 학과로 전속되었어요. 저와 이정민 교수는 인문대 언어학과로 갔어요. 이제 어학연구소에는 전임 없이 제가 연구부장, 황찬호 교수가 영문과 소속으로 소장을 맡았습니다. 그 해 봄에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에서 학위 받고 돌아온 이기용 교수의 Montague 의미론 워크숍을 정릉에서 가졌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10여

명이 의기투합하여 언어학회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8월에 언어학 동호인 간담회(33명 참석)를, 10월 초에 신문화관에서 발기인 모임(67명 참석)을 가졌습니다. 이어 10월 24~25일 어학연구소의 연례학술대회 둘째 날 오후에 한국언어학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학회 정식명칭은 한국언어학회(Linguistic Society of Korea). 학회지 『언어(Korean Journal of Linguistics)』는 연 2회 발간, 소식지 (Newsletter)는 연 4회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초에 제1회 언어연구회를 서강대에서 김태옥 교수, 이홍배 교수의 주도 하에 3일간(1월 4~6일) 개설하여 지방 학생의 기숙 시설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해 여름에는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이혜숙 교수, 이승환 교수의 주도 하에 10일간(7월 14~23일) 대학원생, 중고교 교사 등을 위한 언어연구회를 개최하고, 국어학을 이기문 교수, 김완진 교수, 생성문법을 이홍배 교수, 이기동 교수, 생성음운론을 전상범 교수, 이병건 교수, 의미론을 소홍렬 교수, 이기용 교수가 담당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60년대의 공시적 언어학인 생성 문법 계열(생성음운론, 생성통사론, 생성의미론, 화용론 등)의 연구가 주류였습니다.

김종복: 이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 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된 연구 분야로 통사론 기반의 생성문법 연구에 화용론을 접목하시어 다양한 접면(interface) 현상들을 연구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연구 논문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장석진: 제 연구는 일리노이대 유학에서 Chomsky의 생성문법과 거기서 이탈한 MacCawley, Lakoff, Ross 등의 생성의미론에 기반을 둔 화용론을 문(sentence) 단위를 넘어서는 담화(discourse) 차원에서 살펴보고 싶어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후 문법에 화용론의 여러 양상—Austin-Searle의 화행(speech act)과 화시 (deixis),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접목시키고, 80년대 말 스탠포드대 (Stanford University)에서 1년을 보내면서 Sag 교수의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를 접하고, Sag 교수의 SBCG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에 기반을 둔 제 나름대로의 제약기반통합문법(Constraint-Based Unified Grammar; CBUG)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세웠습니다. CBUG에서 HPSG식 자질구조 AVM(Attribute-Value Matrix)에 화용의 자질구조를 화행, 화맥,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화계(discourse/speech level), 배경(background) 등으로 세분화하여 문법에 화용의 양상을 접목하여 통합적 기술을 한다는 구상인데 “화행의 통합문법적 기술”(2012년 학술원 논문집 51집 1호, 37-87)에서 선을 보이고 막을 내렸습니다. ‘話’(화) 자를 사용한 용어들—화용, 화행, 화시, 화계, 발화수반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사제 용어들인데, “언어학자의 면허(linguist's license)”라고 할까요?

김종복: 교수님께서는 언어학, 화용론, 전산언어학, 영어학개론 등 다양한 연구서를 저술하여 한국 언어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저술 활동, 특히 Benjamins와의 출판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석진: 사실 학문적으로 내세울 것은 별로 없고 몇 권의 단행본은 개론서, 입문서, 이전 발표한 글을 모은 논문집, 공저, 공역 등입니다. 공동 작업으로 한 가지 기억될 일은 70년대 말 어학연구소 소장 일을 할 때 문교부의 위촉으로 서울대 영문과 교수 6인이 참여하여 국정국립중학영어교과서 세 권을 펴내 여러 해 동안 단일 영어 교과서로 전국에서 사용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80년대 말 한국과학재단의 위촉으로 “자연언어처리의 기초연구”를 서울대 전산학과 김영택 교수 팀과 합동하여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연구에 참여했고, 과학재단의 위촉으로 『NLP를 위한 기초연구』, 그리고 Hausser 교수의 『Foundations of Computational Linguistics』(전산언어학의 기초, 2002)의 공동번역에 참여하여 전산 언어학의 앞날을 조망하고자 했습니다. 1996년에 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나온 단행본 『Korean』은 그 출판사의 LOALL(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총서의 하나로 공동편집자인 Bynon 교수(London University)와 Shibatani 교수(미국 Rice University)의 위촉으로 쓰게 된 우리말 입문서인데 200쪽 정도로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술문법의 빼대만 앙상한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종복: 교수님께서는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일리노이대에서 객원교수 및 초빙교수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셨는데, 그 당시 경험과 느끼셨던 점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장석진: 1982년에 1년간 한미교육위원회(Fulbright Commission)의 Senior Fellow 자격으로 하와이대와 하버드대를 객원교수로 방문했는데, 하버드대에는 Kuno 교수가 있고, 이후 MIT에는 Chomsky 교수가 있었습니다. Kuno 교수의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과도 접하고 하버드대 도서관의 개인열람실(carrel)에서 마음대로 책도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고, 또한 Chomsky 교수 강의도 몇 차례 청강했습니다. 1989년에는 안식년으로 1년을 스탠포드대의 CSLI(Center for Studies in Language and Information) 연구소에서 Sag 교수의 HPSG, Bresnan 교수의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Barwise 교수의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 등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 시절과 달리 공부해야 하는 부담 없이 만나고 싶었던 교수를 만나 연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CSLI의 연구발표도 들을 수 있었기에 참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여름(6월 21일~7월 30일) 일리노이대에서 열린 미국언어학회 하계대학에서, 〈Pragmatics〉 강의를 맡았습니다. 이 때에는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 때와는 달리 한 달 남짓 강단에서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종복: 교수님께서는 영예로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시기도 하십니다. 회원으로서 하시는 역할과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석진: 학술원은 정원 150명이 인문사회과학부(6분과)와 자연과학부(5분과) 두 부로 나누어져 있고, 저는 어문분야인 인문사회 제2분과 소속입니다. 이 분과는 다시 어학과 문학으로 나뉘어 있고 12명이 정원입니다. 해마다 분과 당 한 명씩 연구비를 받아 논문을 쓰고, 학술원 논문집이 나오며 분과 순번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분과에서는 2015년에 <우리 시대 언어의 학제적 탐구(Interdisciplinary Explorations of Language in Our Ag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제가 그 조직위원장 일을 맡았습니다. 이 밖에 학술원의 연례행사로는 문교부의 위촉으로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 도서—해마다 3,000여 종—중에서 우수학술도서 300여 종을 선정하는 일을 합니다. 학술원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대한민국 학술원상 수여를 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5~6명 연구업적이 뛰어난 학자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여합니다. 한국언어학회에서는 2002년에 고려대 이기용 교수가, 2018년에 연세대 이민행 교수가 이 상을 수상했어요. 앞으로도 언어학회 회원들이 이 상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복: 최근까지도 교수님을 한국언어학회 온라인 학회나 콜로퀴엄 발표 모임 등에도 늘 참여해주시고 후학들에게 학문하는 자세의 귀감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전히 학술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후학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그러한 모임에 여전히 참여하시면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기대하시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석진: 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Zoom을 통한 화상 발표 모임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몇 차례 참여했을 뿐입니다. 발표나 토론 내용은 잘 몰라도, 모르는 대로 듣고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회 모임이라면 그 장소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 안에서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Zoom이나 Webinar를 통한 학회의 연구 모임이 자주 열리고 많은 회원,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학회 임원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학자들과 화상 발표에 참여하여 교신하는 화상 발표를 자주 갖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김종복: 1975년에 교수님께서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신 상황과 달리, 지금은 언어학의 하위분야별로 전문학회가 생겨서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전공학회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언어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언어학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지향점을 말씀해 주시면 학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석진: 언어학의 하위분야가 확장되고 분야별 학회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모체가 되는 본 학회에서는 교수 회원이 학생 준회원의 입회와 연구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하위분야 학회와 빈번한 접촉으로 다양한 공동 연구회를 개최하고, 학회지 <언어>에 다변화된 하위 분야의 논문이 실리도록 학회에서 힘쓰면 좋겠습니다.

김종복: 언어학을 넘어 인문학의 위상과 관련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인문학의 역할 혹은 사회적 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진: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세 분야, 문(어문)-사(역사)-철(철학)을 지칭하는데, 사람의 말(언어)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언어학은 인문학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를테면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등은 언어학의 하위분야로서 인문학에 속하고, 접속의 주종이 바뀐 언어사회학(linguistic sociology), 언어심리학(linguistic psychology)은 인문학이 아닌 사회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언어(natural language)를 다루는 전산언어학은 언어학이며, 따라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다루는 컴퓨터 분야에서도 NLP를 연구하기 때문에 전산언어학을 컴퓨터학(computational science)의 하위분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은 이렇게 사회학/공학 등과 합성되어 다변화되고 확장되고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말(언어)이면 언어학이고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복: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좋은 말씀이 한국언어학의 발전에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언어학 연구 분야에서의 뿌리를 단단히 해주신 교수님께서 요즘 후학들, 즉, 석/박사 학생들, 신진 연구자들, 그리고 나아가 중견 연구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혹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장석진: 후학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언어학은 말의 학문이며 말과 마음, 말과 사회, 말과 기계의 접합에서 새롭고 다변화된 연구 분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길 많은 하위 연구 분야에서 자기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분야를 선정하고,

556 특별대담

연구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밀고 나가길 권합니다. 목표까지 지름길이 아니면 샛길로 돌아서 갈 수 있고,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학문을 하겠다는 초지는 일관했지만, 시대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좋은 교육환경(서울대, 하와이대, 일리노이대)과 나를 이끌어주신 큰 스승 두 분, 권중희 선생님, 조성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아라!” 저의 좌우명인데 언제까지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할지... 결혼 50주년 금혼이 되고, 내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2023년까지 내일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종복: 다시 한 번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대담은 2021년 5월 20일(목) 장석진 교수님이 회원으로 계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진행되었고, 그 영상 기록은 https://www.linguistics.or.kr/php/menu_05.php#section53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김진우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이장송 교수
육군사관학교 영어학과
jangsonglee0705@gmail.com

김진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1958년) 후 미국 UCLA에서 언어학으로 1964년에 석사, 1966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아바나-샴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교; UIUC)에서 39년(1967-2006)간 언어학을 가르치셨으며,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국제한국언어학회; ICKL)와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umanistic Studies in Language(국제언어인문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다.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KBS 해외동포상(2002), 동승학술상(2008), 연세대 연문인상(2008), 외솔상(2011) 등을 수상하셨다. *Who's Who in America*(1982-), *Who's Who in the World*(2004-)의 인명록에 등재되셨으며,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9th ed.,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Cambridge, 2015)에 게재되셨다. 2017년에는 Marquis Who's Who로부터 Lifetime Achievement Award(평생공로상)을 받으셨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음성학과 음운론이다.

이장송: 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학회는 창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언어학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신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학문 세계를 대담을 통해 조명해 보면서 이분들께서 한국 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대담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언어학과 김진우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의 학문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60여 년 전 교수님께서 평생의 과업이 된 언어학 연구에 대한 뜻을 세워가던 이곳 연세대 교정에서 이 대담을 가지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분주하실 텐데 한국언어학회와 후학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언제, 어떠한 계기로 언어학에 관심을 두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국어학을 하신 제 아버님이십니다. 초기 조선어학회의 회원이시고, “말모이” 팀의 멤버이시며,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셨던 아버님(김형기 金炯基¹)의 유전자를 조금 받았는지, 아버님의 서가에 언어학에 관한 책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근인은 연세대 재학 시 Fred Lukoff²라는 방문교수(1956~73)의 언어학 강의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구조언어학의 거장인 Zellig Harris의 제자로 1954년 Univ. of Pennsylvania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Noam Chomsky와 동기생입니다. Indiana Univ.에서 학위를 하고 Michigan State Univ.에서 근무하신 송석중 선배도 이분 때문에 영문학에서 언어학으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입학한 시기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당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으며,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셨는지요?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1954년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취임하셔서 1959년 문과대 학장으로 정년을 하셨으니까 선생님의 연세대 수학 기간과 겹치는데요. 그분의 수업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어학을 평생의 연구 분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때가 이때인가요?

김진우: 서울대 문리대 언어학과에 입학원서를 못 낸 탓으로, 연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 중반에 연세대 영문과에는 최재서, 오화섭, 최석규, 이봉국, 김선재, 권명수, 이군철, 전형국, Fred Lukoff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타과에는 최현배, 김윤경, 정석해(이상 세 분의 별명은 지나치게 원칙주의자이셔서 “三石頭”로 불림), 허웅, 장지영, 김형석, 고병려(신과대) 등이 계셔서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장송: 공군사관학교 영어학 교관으로서 3년의 군 복무를 마치시고(1958~61)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UCLA를 택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진우: 세 곳(Harvard, UCLA, Univ. of Washington)을 지망했는데, Harvard에서는 alternate fellowship을 받았으나 무산됐고, Univ. of Washington에서는 입학 허가를 못 받아서, 당시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이 없었던 UCLA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장송: UCLA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에게 배우셨습니까? 1960년대 중반이면 미국 언어학계에 Noam Chomsky 선생님의 언어학 연구 패러다임이 맹렬한 기세로 퍼져 나갈 때인데요. 밀고 들어오는 패러다임과 자리를 지켜내려는 패러다임 간의 다툼 또한 치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진우: Robert Stockwell, Peter Ladefoged, William Bright, Paul Schachter, William E. Welmers, Russell Schuh, Jaan Puhvel, David Goodman 등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는 1966년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논문의 제목과 내용, 근거로 삼으셨던 언어학 이론 등과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의 뒷이야기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애초에는 Robert Stockwell 교수의 지도 아래 한국어의 변형생성문법에 관한 학위논문을 쓰려 했는데, 이분이 무섭도록 엄격해서 지도교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이유는 전공을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Peter Ladefoged³ 교수 지도로 *The Linguistic Specification of Speech*(1966)란 학위논문을 썼습니다.⁴ 이것은 말을 언어학적으로 기술할 때 필요한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모색한 것인데, Jakobson-Halle의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s)을 수정/보완한 시도였습니다.

이장송: 1967년 선생님께서는 아바나-샴페인 소재 일리노이 대학교(UIUC)의 언어학 조교수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UIUC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진우: 이때는 시대가 좋아서 UCLA를 졸업하자 몇 군데로부터 조교수 초대를 받았는데, 제 입학을 거부했던 Univ. of Washington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MIT로 박사후과정(Post-Doc)으로 가게 되면서 아무 데도 못 가게 되었는데, UIUC의 과장 Robert B. Lees⁵ 교수가 며칠 후 전화를 걸어 자리를 안 채우고 일 년 기다리면 일리노이로 오겠느냐고 해서 “네, 가겠습니다”라는 구두 약속을 해서 일리노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장송: 학위를 받으신 후, 당시 Noam Chomsky 선생님과 Morris Halle 선생님 등 생성문법이론을 주장하고 그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던 당시 언어학의 메카 MIT에서 Post-Doc을 맍으셨습니다. 이때 어떤 선생님과 어떤 분야를 같이 연구하셨나요? MIT에서의 Post-Doc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그때 Morris Halle⁶ 교수가 Noam Chomsky와의 공저인 *The Sound Pattern of English*(1968)를 쓰고 있었는데 Roman Jakobson 식의 변별적 자질을 개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도와드렸지요. 그 책의 제7장: “The phonetic framework”가 그 결과입니다. 또 Kenneth Stevens란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의 거장에게 사사하고, x-ray를 사용해서 국어의 파열음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송: 취임 당시 일리노이 대학교 언어학과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는지요? 아직 언어학이 언어학과가 아니라 독일어, 불어 등 개별 언어학과에서 다루어지거나 인류학이나 인문학(philology)의 일부로 다루어지던 시기이었기는 하지만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조인 Bloomfield 교수님 등이 봉직하셨던(1910~1921) 대학이라 여전히 구조주의적 언어연구의 전통이 강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아까 언급한 Robert B. Lees 교수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는 꽤 빨리 구조/기술문법에서 변형/생성문법으로 전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과에 소속해 있다가 제가 부임하기 2년 전에 독립된 듯합니다. Lees 외에 MIT의 당시 최근 졸업생들인 Arnold Zwicky, Ted Lightner, Michael Geis 등이 학과의 핵을 이루고 있었고, 인접 외국어학과, 심리학과(Charles Osgood), 인류학과(Chris Lehmann)의 어학계 선생님들이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미국에서 손꼽히는 언어학과였습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 1967년 이후 퇴임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일리노이 대학교에 봉직하시며, 신진기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양성하시어 한국 언어학계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언어학회와 한국의 언어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선생님께서 직접 한국언어학회에 관여하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길러내신 제자 분들 소개 좀 해 주시지요.

김진우: 제자의 정의(定義) 나름인데요. 첫째로 학위논문 지도를 한 제자, 둘째로 학위위원회(doctoral committee)의 멤버로만 봉사한 제자, 셋째로 제 수업을 수강만 한 분들입니다, 음성학/음운론을 전공한 분들이 첫째 그룹에 속하지요. 지금 이를 상세히 기술할 수는 없고, 제 재임 중 거의 쉰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밖에 석사(M.A.)과정만을 수료한 분들이 있었고, 또 방문교수님들이 꽤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는 일리노이 대학교뿐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대학에서도 초빙 및 객원 교수로서 학생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이때의 경험과 일화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미국 대학에는 안식년(sabbatical leave) 제도가 있어서 7년마다 다른 데를 갈 수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직접 학생을 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고(연세대 1983~84, 고려대 1995~96), 또 Hawaii 대학교가 저를 두 번이나 초청해 주었습니다.

이장송: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추구하셨던 언어학 연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위를 취득하시기 전해인 1965년에 *Word*지에 폐쇄음 분류에 있어서의 텐스 피처(tensity feature)의 자율성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신 이후 2019년 *World Englishes*지에 영어의 세계화를 영어의 내적 요소들의 관점에서 분석하신 논문을 게재하시기까지 변함없이 쉬지 않고 언어 연구에 몰두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논문 중 기억에 남는 논문 서너 편을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우: 영문 논문 세 편과 국어 논문 두 편을 들면:

On the autonomy of the tens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ord* 21, 339–359. 1965.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516–527. 1968.

A theory of aspiration. *Phonetica* 21, 107–116. 1970.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韓國言語文學』 8/9, 1–11. 1971.

“국어음절론”. 『한글』 282, 5–33. 2008.

Academia라는 기관에서 학자들의 인용빈도를 통계 내는데,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제 저서와 논문이 지금까지 3천 번 인용되었다네요. (영문 논문에 한해서이겠지요.)

이장송: 선생님의 업적 중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명저서 『언어』의 출판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과 언어학계의 영향력은 이 책이 1985년 처음 나온 후에 2003년 김더본(개정증보판), 2017년에 제3판의 증보판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 이후 언어학 개론의 대표적 저서로 많은 대학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책의 출판 배경이나 목적, 집필 원칙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3~84에 연세대에 객원 교수로 와있었는데, 언어학 입문 교재가 없음을 통감하고, 하나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강의가 있고 숙제와 시험 채점이 있고, 저녁에 동료들과 친교하다 보면,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여름방학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독일

Bochum에서 ICKL의 학회모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 학회에 참석하고 학회가 끝난 뒤 유럽 일주를 하고 돌아온다고 광고해 놓고서는, 몰래 연세대 원주분교로 가서 그곳 영빈관에서 2개월 반 머물면서 쓴 것이 이듬해인 1985년에 나온 『언어』 초판입니다. 2003년의 김더본에서는 응용부에서 “언어와 두뇌” 및 “언어와 음악” 두장을 추가한 반면, 책의 부피를 고려해서 역사부를 뺐습니다. 2017년의 제3판은 2007~12년 연세대에서 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것들과 응용부에서 “언어와 컴퓨터” 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적어도 4, 5년마다 새 판을 내야 하는데 제 성격이 워낙 게을러서 30년에 세 판밖에 못 냈습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는 언어학 연구의 통섭적 접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우: 물론 바람직하고 필요한 현상입니다. 응용부의 장(chapter) 수가 초판의 셋에서 3판의 여섯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독립된 학문은 없습니다. 인구어족(印歐語族)의 발상지와 이민의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고고학(考古學)을 알아야 하며,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과 음성합성(speech synthesis)을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어학과 학생들이 공과대학과목을 수강하고, 공과대학생들이 언어학 과목을 수강하는, 몇 해 전만 해도 전무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는 언어학과 교수와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를 겸임하시면서 한국어 교육과 보급에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시아에서의 문자와 문해(文解) 심포지엄(Symposium on Literacy and Writing Systems in Asia)”을 개최하는 등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기억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리노이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시작되었는지, 미국 SAT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채택된 과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해외에서의 한국어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후학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요?

김진우: 제가 가장 경애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영군이 없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큰 행운의(lucky, fortunate) 날은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태종의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이(李珥)가 충녕대군(大君)으로만 남아있었다면, 한글은 오늘 없었을 것이고, 한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⁷

고려대에서의 한 해가 끝나가던 1996년 8월, 귀미를 앞두고, “내가 출국 전에 어디 한 곳을 가본다면 어디를 갈까?”라고 생각하던 중, 제가 가장 경애한다는 세종의 왕릉에 가서 참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英陵)에 갔습니다. 입구의 전시관 벽에 세종의 약력이 있었는데, 이분의 탄생일이 1397년 5월 15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년이 세종의 탄신 600주년이잖아!”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아시아에서의 문자와 문해”라는 주제로, 한번은 1998년 5월 1~2일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한번은 1998년 7월 13~1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이 두 학술회의의 산물이 *Literacy and Writing Systems in Asia*(Univ. of Illinois, 2000)라는 책입니다.

제가 일리노이 대학교에 부임한 1967년에는 서구어문학과만 여럿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문학과는 전무했습니다. 아시아 문제 연구소(Center for Asian Studies)에서 일본어와 중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지요. 1980년대가 되면서 시카고에 사는 한국 교민의 15세들이 한국어 수업을 요구했는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문리과대학 학장이 제게 동아시아어문학과의 신설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과 1990년에 동아시아어문학과가 창설되고 제가 초대 과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저는 언어학자이지 동아시아어문학자가 아니라서, 이듬해에 언어학과로 돌아가고 25%만 동아시아어문학과 겸직교수로 남았습니다. 이밖에 미국의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의 연례학회에서 여러 번 한국어학 패널을 조직했고, 국제한국언어학 심포지엄도 조직/개최하였으며, 1994년 8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이란 주제로 남북 언어학자들의 모임도 가졌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란 제목으로 강연도 했고요. 1996~98년에는 한국어(Korean)를 미국 Educational Testing Board의 SAT II(Scholastic Aptitude Test 의 제2외국어 부분)의 여덟 번째 외국어로 채택시키는 준비위원의 일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성쇠는 언어의 자질에 달린 것도 아니고, 선생의 자격에 달린 것도 아니며, 그 언어 화자의 문화, 역사, 국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어가 왜 세계어가 되어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류 뷔, 올림픽을 주최할 수 있는 사회력, G20의 회원국이 되고 G7에 초대되는 국력, 이런 요소들에 한국어의 운명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장송: 선생님께서는 교육과 연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어학계와 우리 사회를 위한 봉사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한국언어학회(ICKL)의 창립에 관한 이야기와 ICKL이 한국어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1970년 초에 국제적 한국언어학를 설립해야겠다는 의견이 당시 북미에서

한국언어학을 하고 있던 소수(송석중, 손호민, 국웅도, 구장희, 이정로, 김진우 등)가 1975년에 학회를 조직하고, 소규모의 학회인지라 society나 association이란 어휘를 안 쓰고 겸허하게 circle이란 어휘를 택해서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ICKL)을 조직하고 초대(1975~77) 회장에 송석중 교수(Michigan State Univ.)가, 2대(1977~80) 회장을 제가 역임했습니다. 2년마다 학회를 열어왔는데, 제22회의 학회가 올 8월 16~18일에 대만의 National Chengchi Univ.에서 열립니다.

이장송: 2000년에는 인문학의 통섭적 연구를 기치로 하여 소위 ‘이론 언어학’을 탈피하고 philology 전통에서의 언어연구를 표방하는 국제언어인문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 학회의 창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우: 사실 전 이 학회의 창립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문경환(연세대), 박병수(경희대), 임상순(서울시립대), 박충연(가천대), 이장송(육사) 등이 학회를 설립하고 저를 회장으로 추대했는데, 전 자격도 없고 서울에 상주하지도 않으매 몇 번 사절하다가 수락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학회지 『인문언어』(*Lingua Humanitatis*)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고 통섭적 인문언어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송: 평생을 언어학과 국어학 연구에 바치신 선생님의 개인적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언어학회를 이끌어 갈 신진학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김진우: 저는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공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학교식당에서 접시를 닦아가며 고학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여유를 보면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제가 *Who's Who in America*에 남긴 말입니다:

“In the presence of excellence, mediocrity is a sin.”(‘탁월한 환경에서 범용은 죄이다’)

이장송: 다양성과 전문화의 시대에 한국언어학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서도 고견을 부탁합니다.

김진우: 이씨조선의 사회 위계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었습니다. 이 위계가 지금은 거꾸로 “상공농사”가 된 듯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상업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science와 technology이고 “사(士)”가 대표하는 인문학은 최하위입니다. 제가 1960년 초에 몇 미국 대학 언어학과에 입학 지원을 했을 때, MIT에 언어학과가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있는 줄 알았다면 입학원서라도 제출해 보았겠지요. UCLA에 들어가서야 Chomsky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MIT가 현대 언어학의 메카(mecca)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UCLA 졸업 후 MIT에서 Post-Doc을 하면서, MIT에는 언어학과만 특출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과, 심리학과 등에도 노벨상 수상자 교수가 있을 정도로 인문학 분야가 탁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공과대학에서 인문학이 이렇게 뛰어날까? 그래서 MIT의 역사를 뒤져보았습니다. 이때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잊었는데 20세기 초의 MIT 총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인문학을 MIT에 키웠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모르는 과학자는 Frankenstein일 뿐이다.”

저는 이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공(商工)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되며, 인문학의 중심에는 언어학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문”(人文)이나 “Humanities”에나 “사람”(人, human)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을 만드는 것은 언어입니다.

이장송: 장시간 대담에 친절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뒤따라오는 후학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횃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한 나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여러모로 부족하고 또 현대 한국언어학의 뿌리 조성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저를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저로서는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언어학회 회장 이민행 교수님과, 바쁜 시간에 인터뷰 사회를 맡아주신 국제언어인문학회 전 회장이신 이장송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대담은 2021년 6월 29일(화)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진행되었고, 그 영상 기록은 <https://www.linguistic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¹ 김형기(金炯基 1905–1989). 조선어표준어 최연소 사정위원. 1954–71: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964–68: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장. 충남 장학관, 교육위원. 1969: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² Fred Lukoff(1920–2000). 1956–73: Visiting Prof., Yonsei Univ., Seoul, Korea. 1974–89: Prof. of Linguistics, Univ. of Washington.

³ Peter Ladefoged(1925-2006). 1962-91: Prof. of Phonetics, UCLA. 1978-79: President,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1987-91: President,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⁴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첫 언어학박사임.

⁵ Robert B. Lees(1922-96). Univ. of Illinois 언어학과의 창립자이며 첫 과장(1965-68).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1957)의 서평을 씀(*Language* 33, 375-408, 1957). MIT의 첫 언어학박사로, 초기 변형생성문법의 열렬한 지지자였음.

⁶ Morris Halle(1922-2018). Chomsky와 더불어 MIT의 언어학과를 창립함. 1956-96: MIT 언어학과 교수. 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창시자. 1974-75: President,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⁷ 조선왕조실록의 『태종실록』에 따르면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날은 1418년 음 6월 3일(양 7월 6일)이다. 웹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참조.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문자의 중요성은 다음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마오제동(모택동)이 “현대 중국의 성자”라고 지칭한 20세기 초 중국의 문인 루쉰(魯迅 Lu Xun, 1881-1936)이 “漢字不滅 中國必亡”(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마오가 문자개혁을 시도하다가 pinyin 식의 로마자화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대신 간체자(簡體字)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이기용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윤애선 교수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asyoon@pusan.ac.kr

이기용 교수님은 미국 Saint Louis 대학교에서 1963년 문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전남대학교에서 1967년에 영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 이어 1974년에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언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전북대, 중앙대 와 고려대에서 35년간 영어학과 언어학을 가르치셨다. 한국언어학회 회장(1990-92) 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언어자원 관리 소위원회 산하의 워킹그룹 WG 2 “의미정보 주석” 영역의 컨비너 겸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 중이시다. 활발한 국제활동과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오이겐 뷔스터 특별상(Eugen Wuester Prize)(2006) 및 대한민국 학술원상(2002)과 대한민국 화관 문화훈장(2016) 을 수상하셨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식-컴퓨터 의미론이다.

윤애선: 2025년이면 한국언어학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학회의 역사를 반추하고, 한국언어학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현대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여러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시고 오랜 기간 핵심 멤버로 활동하시면서, 학회의 초석을 다지신 이기용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용: 저를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회 창립 초기에 초대 연구이사, 제2대 총무이사, 그리고 제8대 회장으로서 국내 언어학 기반의 확립과 국제학문교류에 학회의 다른 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윤애선: 선생님과 제 인연은 정말 오래됐죠? 소위 동문이라든가 사제지간이라든가 하는 외형적인 학연은 없었지만, 제가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선생님들 중의 한 분이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시고요. 제가 1982년 석사과정 학생이었을 때 학회의 연구회와 발표회에서 활성하게 활동하시던 선생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방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기용: “40여 년”이란 말씀을 하셨으니,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했던 PACLIC 25주년 기념 강연이 생각납니다. 그때 지난 40여 년의 저의 학문적 관심의 변이와 함께 의미론 연구의 흐름을 대략 10년 단위로 반추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학술원 수상 대상이었던 저서, 제1권 『형식의미론』, 제2권 『가능세계의미론』, 제3권 『상황의미론』, 그리고 네 번째 저서인 『전산형태론』도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제 연구의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애선: 선생님의 학문적 활동 및 업적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째, 국내 언어학 및 국어학계에서 현대언어학, 특히 형식의미론적 연구를 선도하면서 국어 의미론 및 의미론 이론 연구에 기여하신 것입니다. 둘째, 국어 정보화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학제적 연구를 활발히 하시면서 정보화 시대의 언어연구 방향에 대한 앞선 연구를 진행하고 이끄셨습니다. 고려대 언어학과 교과과정에 정보화 흐름을 도입하기도 하셨습니다. 셋째, 언어자원관리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한국 및 세계 전산언어학계를 대표해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오늘날까지도 혼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시기별로 선생님의 연구 궤적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현대언어학의 역사를 반추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기용: 좋은 제안이십니다. 60분 동안의 대담에서 지난 50여 년의 현대언어학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한국언어학회가 창립되어 제가 한국 언어학회 제8대 회장의 일을 마무리하며 1992년 7-8월에 개최했던 제3회 SICOL-1992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맺으면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의 활동보다도 함께 일하고 공부했던 분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분이 이젠 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윤애선: 한국언어학회의 창립에 기여하신 선생님 개인에 대한 이야기와 언어학, 특히 선생님 전공이신 몬태규 문법 또는 의미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대담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국한된 시각이겠지만 학회의 활동 내역, 전공 분야의 연구 내용, 개개인의 이력과 공헌도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기용: 알겠습니다.

윤애선: 그럼,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박사과정에 입학하셨던 70년대부터 시작 할까요? 처음 계획으로는 번역이론, 기계번역 연구를 하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기계번역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알고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기용: 일찍이 소련에 이어 미국 조지타운대학 등에서 기계번역을 시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0년대 학부 때 컴퓨터로 분류작업을 하는 편치카드도 써보고 수리분석을 공부할 때, 숙제로 컴퓨터는 아니었지만, 타자기처럼 생긴 계산기를 써서 확률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1971년, 미국에 유학갈 때 기계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이론이라는 포괄적인 언어학 이론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연구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풀브라이트에서 저를 사립대학인 조지타운대학 대신, 등록금이 싼 주립대학인 텍사스대학교 언어학과로 보냈습니다, 그때 받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공식 분야는 영어교수법(TEFL)이었는데 당시에는 장학생 프로그램에 없던 언어학과에 들어가도록 비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서류상에는 영어교수법을 전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텍사스대학교에 가 보니 기계번역 지원 프로젝트가 이미 사라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기계번역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져서 정책적으로 모든 기계번역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컴퓨터의 기능이 우리가 현재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 기능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으니 기계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텍사스대학교 언어학과가 MIT 다음으로 UCLA 언어학과와 함께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학과라는 것을 텍사스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번역이론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을 받아준 텍사스대학교 언어학과의 융통성에 또한 놀랐습니다.

윤애선: 예. 1964년 ALPAC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에서 기계번역은 20세기 내에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로 분류되었지요. 그래서 몬태규 문법에 관한 박사논문을 쓰시게 된 것인지요?

이기용: 언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번역이론을 전공하든 아니든, 통사론, 음운론, 음성학, 역사언어학 등 기본 필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했습니다.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났더니 당시 학과장이던 Emmon Bach 교수가 저를 학부생들에게 언어학 개론을 가르치는 강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는 Stanley Peters 교수의 연구원(research associate)으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보통 2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런 장학금을 타는데 말입니다.

몬태규 문법(Montague Grammar)을 전공하게 된 것은 Peters 교수 때문입니다. 1972년 여름 방학 중 LA에서 열린 언어학 워크숍에 갔다가 Barbara Partee가 소개하는 두툼한 “몬태규 문법” 강의록을 갖고 와서 그것을 공부하라고 과제로 내주었는데 그것이 연구원으로서의 제 임무 전부였습니다. 논문도 쓸 필요 없이 공부만 하는 좋은 연구원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몬태규 문법이 매력이라기보다는 도전이었습니다. Partee 교수의 강의록을 읽기는 쉬웠지만 몬태규 문법 이론의 바탕이 되는 고차내포 논리(higher-order intensional logic)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혼자서 람다 연산법(lambda calculus)을 익히고 모형이론에 입각한 의미론을 조금씩 파헤쳐 갔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 앞부분입니다. 그 후반부는 람다 연산법을 이용해서 영어의 몇 가지 구문을 람다 언어로 변환하는 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위논문을 끝냈을 때 LA에 있는 몬태규의 제자 Michael Bennett과 저, 그리고 독일의 Roland Hausser, 세 사람이 세계에서, 아니 적어도 미국에서 최초로 몬태규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제 지도교수 Bob Wall은 저의 큰 은인이십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는 마지막 여름을 저를 위해 완전히 바쳤습니다.

윤애선: 제게도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Emmon Bach처럼 책이나 논문으로만 접한 분부터 Lauri Karttunen이나 Roland Hausser처럼 선생님을 통해 학문적 교분을 쌓은 분들도요. 한국에 돌아오셔서 국내 언어학계에 몬태규 문법과 형식의미론을 소개하고, 한국언어학회를 만드시게 되나요? 국어학회와도 인연을 맺으시고요.

이기용: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는 영어에 대하여 논문을 쓰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한국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국어학자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언어학회가 창립되기 전, 국어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3년 서강대에서 뵈었던 김완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간접적으로 제가 아는 분을 통해 국어학회 겨울 모임이 수원에 있는 “말씀의 집”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1974년 12월 추운 겨울에 수원에 갔습니다. 수원에 가서, 뭐 저도 짊었을 때이지만, 이병근, 정광, 임홍빈과 같은 국어학회의 짊은 학자들을 알게 된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국어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형식의미론 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우리말의 전산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기억됩니다. “언어와 추정”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우리말 처리에서의 매개모음의 설정 필요성에 대한 논문, 두 편을 <국어학>에 실었습니다. 국어학과도 인연이 있는 <애산학보>에도 논문을 두어 편 실을 수 있어서 몬태규 의미론을 간접적으로 국어학회에, 또 국어학계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윤애선: 국어학계와는 그때 처음으로 교분을 쌓기 시작하신 건가요?

이기용: 국어 또는 국어학과의 인연은 60년대로 돌아갑니다. 1965년 초,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명도원에서 한국말을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면서 한국어의 억양(intonation contour)에 관심을 갖고 시각적 표시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주대건신학대학(현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심재기 교수와 함께 근무하면서 언어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희승, 최현배, 이승녕 선생님의 저서를 읽게 된 것, Noam Chomsky를 알게 된 것도 심 교수의 은덕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 적을 두고 우리말의 특수조사 “-는”과 격조사 “-가”的 차이를 논문 주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순 지도교수께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논문은 영어로 썼고 그 당위성도 설명했습니다. 특수조사 “-는”이 관형절이나 조건절 같은 종속절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도 그 논문에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종속절에 있는 명사구가 주제어(topic)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양보절의 명사는 “-는”과 결합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명사는 대조(contrast)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전북대학교에서 이익섭, 전광현, 홍윤표 교수와 같은 국어학계의 거성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가르치며 교분을 나눈 것이 결정적으로 제가 국어학의 서자로나마 입양될 수 있었던 연유였습니다. 전북대 중등교사 하계강좌에서 언어학 과목을 맡게 한 것도, 일본 천리대학 조선어학과 교수로 공식 추천한 것도 고려대 국문과의 송하준 교수와 이익섭 교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문과 교수이면서도 국문과 교수들에게 진 빚이 많습니다.

윤애선: 그럼, 국내에 몬태규 문법을 처음 소개하신 건 국어학회에서였나요?

이기용: 아닙니다. 제가 몬태규 문법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한 것은 1974년 가을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구회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연구부장이시던 장석진 선생님이 제 발표를 보시고 한국에서 학연이 적은 저를 도와주시기로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고 저는 선생님을 저의 스승이요 평생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언어학회가 1975년 가을에 창립되었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장석진 선생님, 부회장으로 양인석, 총무이사 이승환, 재무이사 남풍현, 연구이사 이기용 등, 그리고 한양대의 서정수, 연세대 김석득, 남기심, 서울대 이맹성, 양동휘, 이병건, 전상범, 고영근, 육사의 이홍배, 당시 이화여대 신수송, 서울대 홍재성 교수 등이 새로운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때 한국언어학회에 합숙하면서 1주일 정도 집중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단골손님이 생성문법과 생성음운론과 의미론으로는 몬태규 문법이었습니다. 학회 참석 연인원은 200여 명이 되고 강좌신청자는 70~80명이 되었는데 여러 날을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많은 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광경을 이기문 선생님이 보시고 마치 종교집단이 부흥회를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칭찬으로 새겨들었습니다.

윤애선: 저도 한국언어학회에 대학원생으로 참여해서 집중강의 프로그램의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산언어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도 그 프로그램 덕분이었답니다.

이기용: 한국언어학회 제2대 회장으로 이기문 선생님을 모시고, 부회장으로는 이병건 선생님, 그리고 제가 총무를 맡았습니다. 이기문 선생님이 자주 해외에 나가셨기에 공석 시에는 이병건 부회장과 총무가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언어학 공부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기문 선생님이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70년대 말 제가 반포로 이사 갔을 때, 저희 부부를 선생님의 반포아파트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강신항 선생님과 사모님이신 정양완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윤애선: 이기문 선생님의 댁에 귀빈급 언어학자가 초대되어 두터운 교분을 쌓았듯이, 훗날 이기용 선생님의 반포집과 광릉 시골집에도 유수한 국내외 언어학자들이 초대되었죠. 영광스럽게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그곳을 “KLEE’s Linguistic Institute”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별명이 몽기용이었다면서요? 과연 몬태규 문법의 핵심은 한 마디로 무엇인지요?

이기용: 몬태규 문법의 핵심은 자연언어의 의미론입니다. 몬태규 문법의 가장 큰 기여는 언어학의 변두리에 있거나 그 밖에 있던 의미론을 언어학의 중심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몬태규는 MIT 학파처럼 의미를 논하지 않고 언어 구조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고, Bertrand Russell도 의미를 배제하여 언어를 논하는 것은 추가 안 달린 괘종시계를 갖고 노는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다고 했습니다. 몬태규에 따르면 통사분석은 의미해석의 제약을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통사분석의 타당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애선: 60년대 말부터 MIT 학파의 통사론이 언어학계를 주도했지만,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요. Noam Chomsky의 제자들도 포함해 서요. 그런데 논리학자인 Alfred Taski의 제자 몬태규가 1971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타계하여 학계의 아쉬움이 컸을 텐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나 논문은 무엇인지요?

이기용: 몬태규 문법을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몬태규의 PTQ(1975)입니다. 이 논문에서 몬태규는 영어의 양화(quantification) 현상을 다룹니다. 양화의 범위상 중의성(scope ambiguity)을 다루기 위해 통사분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몬태규는 폴랜드파 논리학에서 유행하던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을 도입합니다. 범주문법을 택한 이유는 통사의 어휘 범주(category)를 의미 대상의 유형(type)에 쉽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70년대의 몬태규 문법 연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몬태규의 이론을 해설하고 언어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Barbara Partee, Michael Bennett, Roland Haussler, Richmond Thomason 등이 그런 일을 했고 저의 학위논문(1974)도 그러한 부류에 속합니다. 둘째는 몬태규 문법과 때로는 잘못 동일시되던 범주문법을 Noam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의 기초가 되는 구구조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으로 대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UCLA에서 몬태규와 함께 몬태규 문법을 제창한 MIT 출신의 Barbara Partee였습니다. 일찍이 변형문법을 소개했던 Emmon Bach도 한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Gerald Gazdar의 일반구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GPSG), Ivan Sag와 Carl Pollard의 머리구동 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몬태규 문법의 최대 약점은 어휘의미론이 결여된 점입니다. 체계상으로는 몬태규가 Rudolf Carnap의 Meaning and Necessity(1947)에서 “의미공준”(meaning postulate)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의미해석의 “가능한 모형”(possible models)을 “허용가능모형”(admissible models)으로 제약하는 장치를 설정하여 이런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러나 의미공준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몬태규 의미론의 취약점을 보완한

것은 Dowty(1976, 1975)로서, 그는 몬태규 문법에 생성의미론을 결합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창된 Pustejovsky(1996)의 생성어휘론도 이런 맥락에서 몬태규 의미론을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애선: 저는 이익환 선생님 수업을 청강하면서 몬태규 문법을 처음 접했는데, 논리학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당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졸았던 기억도 납니다. 나중에 전산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기용: 몬태규 문법을 체계적으로 한국에 소개한 것은 1975년 겨울 아카데미 하우스 워크숍 때였습니다. 거기에 철학자로는 분석철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소홍렬, 전북대 김영철, 서울대 이명현 교수들, 언어학자로는 양인석, 장석진, 서정수, 이정민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강사는 이기용, 그리고 교재는 그의 학위논문이었습니다. 2주 동안 낮에는 몬태규 문법을 공부하고 밤에는 난로 가에 모여 서정수, 이명현 선생이 번갈아 가며 고금소총 특강을 했습니다.

윤애선: 그때부터 철학자들과도 교분을 쌓으셨군요. 이제 80년대로 화제를 돌리면 어떻습니까?

이기용: 좋습니다. 다만, 장석진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국언어학회의 기록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1975년 겨울 첫 아카데미 하우스 워크숍에 이어, 언어학자를 중심으로 제2차 워크숍을 8월에 갖게 됩니다. 이때 양인석 선생님이 장석진, 김태옥 선생님을 비롯한 언어학자들 열댓 명을 초대하고 2주 가까이 함께 보냈습니다. 무엇을 공부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한국언어학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모임이 급물살을 타고 창립총회가 10월에 열리게 되고, 장석진 선생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윤애선: 8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언어학회가 개최한 행사로 제1회 서울국제언어학 대회(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 SICOL)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기용: 1981년 여름, 서울 중심가의 롯데호텔에서 SICOL-1981이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한국언어학회 제3대 회장 양인석 교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부회장 안병희 서울대 교수, 총무이사 김재민 장군 육사교수부장, 이익환, 최재웅 교수 등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해외 초청강연자 중에는 Charles J. Fillmore, George Lakoff, Haz라고 불리던 John R. Ross, Gerlad Gazda 등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일본국제대학의 가즈코 이노우에, 아키라 이케야 교수가 왔습니다. 여러 만찬 중에 성대한 만찬이 서울시장

주최로 열렸는데 서울시장 환영사는 제가 기안하고 육사-중앙대의 김진우 교수께서 쓰셨는데 명문의 연설문이었습니다. SICOL-1981이 일본에서 온 이노우에 교수와 이케야 교수는 몬태규 문법을 중심으로 둥친 우리 한국 학자들과 일본의 언어학자들을 뮤어주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윤애선: 제1회 SICOL이 한국과 일본 간 언어학자 교류로 이어지는군요.

이기용: 일본과의 교류에 앞서 몬태규 문법에 대한 공부를 더 심화시키고, Gerald Gazdar의 『형식화용론』(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1978)을 이해하기 위하여 스터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그룹에는 이정민, 신수송, 이익환, 이기용 교수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 외에 논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이화여대 철학과 소홍렬, 고려대 철학과 여훈근, 이정민, 이기용 교수, 서울대 철학과 출신의 LG 전자 이현조 회장님이 매월 함께 만나는 또 하나의 스터디 그룹이 있었는데 전자는 서울형식문법연구회로 발전하여 80여 명이 모이는 대그룹이 되었고 후자는 한국철학회 안에 논리학회와 분석철학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철학과의 정대현 교수도 우리와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이기용은 소홍렬 교수와 이혜숙 교수의 주선으로 이화여대 대학원의 철학과와 영문과에 3-4년간 출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식문법연구회는 점점 구조화되어 가고 세계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중앙대 외국어교육학과에 텍사스대학교에서 학위를 끝낸 다음 중앙대의 저희 학과로 모시게 된 이익환 교수가 총무라는 직함으로 연구회를 대표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이화여대 이혜숙, 김영숙 교수와 후에 서울대로 옮긴 이화여대 독문과의 신수송 교수의 주선으로 이화여대 국제관에서 제1차 한일공동워크숍(The First Seoul Workshop on Formal Grammar Theory)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Roland Hausser 박사가 뮌헨대학에서 이 공동워크숍의 첫 강연자로 초대되어 왔고, 양인석 교수는 그에게 하우사(河宇士)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는 지금도 그 이름을 새로이 나오는 책 표지에 찍어 한국의 첫 방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의 이케야 교수는 일본에 논리언어학회 (Logico-linguistic Society of Japan, 회장 이시모토 아라타)를 만들어 우리를 일본으로 초청하게 되어, 일본 교토대학(1983), 동경의 상지대학, 시고쿠 마쓰야마대학(1984, 12월) 등에서 공동워크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장석진 선생님의 제안을 따라, 이기용이 이익환 교수의 후임으로 대표라는 공식 이름을 띠고 서울형식문법연구회의 일을 맡게 되고 당시 외국어대 조교수였던 KAIST의 최기선 교수가 총무의 일을 맡아 한일공동워크샵을 개최해 나갔고, 제 후임으로 육사-서강대의 이홍배 교수가 대표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서울형식문법연구회는 규모가

커져서 한재현 교수의 주선으로 모임 장소를 중앙대에서 숭실대로 옮기게 되어 가까이 있는 서울대뿐 아니라 주변의 대학원생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애선: 한국언어학회와 서울형식문법연구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기용: 서울형식문법연구회를 처음 구상한 이정민, 이익환, 이기용은 이 연구회를 한국언어학회 산하 연구회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민 교수는 화용론과 인지에 역점을 두면서 학회를 발전시켜 나갔고 이익환 교수는 일본과의 교류에 촉매 역할을 하면서 몬태규 의미론, 더 나아가서 상황의미론의 중흥기에 이르게 합니다. 이익환 교수는 그의 강의뿐 아니라 의미론에 관한 2권의 저서로 저변확대에 크게 공헌하였고, 홍재성 교수와 함께 제18차 국제언어학자대회(CIL-2018)를 한국에 유치하여 대회 역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윤애선: SICOL이 계속 이어져 개최됩니까?

이기용: 제1회 SICOL-1981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제3회 SICOL-1992가 고려대학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이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아직 50대 초반인 저를 서열을 앞질러 회장으로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고 암으로 투병하는 제가 죽기 전에 회장직을 맡아서 살아남으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实은 1989년 12월, 제가 아직 병상에 있을 때, 본인의 의사도 타진하지 않고 한국인지과학회의 소홍렬, 조명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저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아니 겹치기 학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인지과학회의 일은 차기 회장이면서 부회장인 서울대 컴퓨터학과의 김영택 교수와 총무인 이익환 교수에게 맡기고 저는 연설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제가 반포 카페에서 김영택 교수와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이때 시작한 인지과학회 국제회의를 이정민 교수가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키우고 지금도 국제인지과학회 학술지 Cognitive Science의 편집위원장의 막강한 임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애선: 국내 인지과학에는 저도 열심히 참여해서 부산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언어학회 회장직을 맡으시고 어떻게 SICOL-1992를 준비하셨습니까?

이기용: 실은 양인석 선생님께 언어학회도 만들지 말고 SICOL과 같은 일거리도 만들지 않고 저희들은 공부만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죠. 2년 동안 SICOL-1992 준비와 운영으로 제 회장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집중해

야 할 주변의 소장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청 강연자 선출 및 초청하는 일 등 프로그램을 짜는 일과 논문 심사하는 일, 둘째는 참석자를 동원하는 일, 셋째는 모금하는 일, 넷째는 실제로 회의 진행하는 일, 다섯째는 발표논문집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과제는 프로그램 소위원장인 최재웅 교수가 맡았습니다. 여러 연구회들과 소장과 학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토록 위임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일 처리가 잘 안 되던 시절, 수천 통의 이메일을 쓰느라, 특히 소련학자들을 초청하느라 특히 비자 발급 때문에, 최재웅 교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논문 심사하는 일은 이익환 선생과 그의 소위원들이 맡았습니다. 위원들이 지금은 다 대학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과제는 언어학회 집행부가 맡았습니다. 국내 참석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지방순회 강연 및 연구회를 활용하면서 지방의 언어학회 명예회원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송병학, 서상옥, 도수희 교수, 전주에서는 김수곤, 조규태, 신용진, 최창렬, 최광현 교수, 광주에서는 신상순, 이환묵, 이영현, 조학행 교수, 대구에서는 김태한, 천시권, 정연규 교수, 부산에서는 김종태, 안동환, 박선자 교수 외에 젊은 소장과 교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연구회의 도움도 받았는데, 특히 서울형식문법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던 이정민 교수와 총무 최재웅, 편집 강범모 교수가 한일공동워크숍을 확대하여 SICOL-1992의 위성 학회로 아시아언어학대회(Asian Conference)를 개최하고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이란 주제를 내걸면서 대만 SINICA의 Chu-Ren Huang 등을 초대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그다음에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의 Benjamin Tsou가 주최한 PACLIC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PACLIC은 국제대회의 그 주제를 유지하면서 명칭 Asia-Pacific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SICOL-1992 행사 중에서 한가지 매우 아쉬웠던 것은 한국어로 발표하는 Korean session을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홍윤표 교수에 의해서 그러한 제안이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 공식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을 뒤에야 알게 되어 천추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모금하는 일. 참 어렵지요. 서강대의 김태옥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현대에서 천만 원, 섭외위원장이었던 홍재성 교수와 서울대 불문과의 정지영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재단의 후원, 전북대 김수곤 총장의 100만 원 등이 밀반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안(?)으로 회원들의 기부금을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전 회장, 부회장님들은 30만 원 이하, 상임이사들을 포함한 이사들은 20만 원 이하, 일반회원은 등록금을 포함하여 10만 원 이하, 이렇게 하였더니 물려받은 거액의 기금과

국제회의의 잉여금을 합친 돈 8천여만 원을 학회기금으로 넘겨주면서, 김재민, 홍재성 교수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를 진행하는 일, 이 일은 영어가 유창한 서강대의 조숙환, 홍익대의 김영주 교수와 건국대의 안희돈 교수가 맡았습니다. 박강희, 김영은, 신유진, 황화상 등 고려대 대학원생들이 재정을 맡은 정광 선생님과 함께 뛰었는데 점심도 제 돈으로 사 먹었단 말이 있습니다.

다섯째, 출판하는 일. 발표 논문집(Proceedings)의 크기가 누가 말했듯이 전화번호부처럼 커다란 1,115쪽의 큰 책이 됩니다. 출판을 맡은 홍윤표와 국민대 윤종렬 교수가 한국문화사의 후원으로 논문집을 출간합니다. 발표 후 선정된 논문들은 한국언어학회 편집위원장 이익환 교수와 그 외 편집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으로 발간됩니다. 이런 과정에, 아직도 병환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회장 이기용을 도와주신 분들의 고마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부회장 서울대 국문과의 이병근, 영원한 친구 홍윤표, 최재웅, 총무 정국, 재정 정광, 많은 제안을 해 준 서강대 김영석, 이익환, 박병수,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신 장석진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윤애선: 그 무렵, 아니 그 이전부터 한국언어학회에 많은 연구회가 생겼다면서요?

이기용: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후죽순으로 한국언어학회 안에 여러 연구회가 생겨났습니다. 이홍배, 양동휘, 김용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생성문법연구회가 생기고 이혜숙, 전상범, 정국, 김영석 교수 등이 이끄는 음운론 연구회, 김태옥 교수 등이 주축이 된 담화론연구회가 생기면서 언어학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려대의 조성식 선생님과 이용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문법연구회가 한국영어학학회가 되고, 이맹성 선생님을 모시고 서강대의 김영석 교수가 조직한 한국영어학회가 이미 창립되었고, 호남에는 대한언어학회가, 대전의 한국현대언어학회, 대구, 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학회들이 부활되거나 새로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분화 과정에 서울형식문법연구회의 강좌 내용이 점점 언어, 정보, 계산의 3가지 주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병수 교수가 이 연구회의 회장이 되면서, 연구회의 이름이 한국언어정보학회(KSLI)로 바뀌면서 한국언어학회와는 조직상 독립하게 됩니다.

윤애선: 오늘 대담에서 선생님의 연구 궤적을 따라 지난 50년간 한국 현대 언어학의

역사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빅데이터(Big Data)와 심화학습(Deep Learning)으로 대표되는 AI 기술력이 한 달이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계번역 분야와 단순한 지식처리 분야에서 언어학자와 인문학자의 역할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redrick Jelinek이 음성인식 분야에서 언급했던 “언어학자를 해고할수록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평가가 이런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어의 문장들을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과업이나, 복잡한 지식을 추론하는 과업 등은 여전히 전문가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가장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영어 문법 교정기 Grammarly가 통계보다 언어규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언어학자들에게 고무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언어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 그 전공을 선택할까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또한, 이러한 후학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언어학회가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개인적인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기용: 1986-87년 1년간은 스탠포드대학교 CSLI에서 상황이론과 상황의미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를 보는 시각입니다. 또 하나는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상황의미론은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조그마한 세계(small world) 또는 최소세계(minimal world), 곧 상황(situation)에서 얻어지는 부분적 정보(partial information)에 초점을 둡니다. 행위격, 주제격 등을 다루는 의미역(semantic role)에 대한 연구도 조그마한 세계를 상징하는 틀망(frame net)으로 축소됩니다. 형식의미론과 응용의미론을 융합한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Fillmore 교수의 SICOL-1982 논문 Frame Semantics를 다시 읽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연구해 온 주석기반 의미론(Annotation-based Semantics: ABS)은 조그마한 세계와 부분적 정보라는 2개의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학문을 위한 도구.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언어학자로서 대상 언어인 여러 자연언어에 대한 지식과 구사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언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언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구 언어로는 언어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수리논리적 상위언어에 대한 구사 능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수리통계적 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날의 칼(two-edged sword)을 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에만 익숙하고 후자는 최재웅, 이민행 교수, 그리고 오늘 저와 대담을 하는 윤애선 교수와 같은 동료 후학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이 앞으로의 언어정보 분석에 대한 길 안내를 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끌으로, 한국언어학회 창립과 발전에 참여했던 한 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언어학회가 관련 연구회 또는 학회의 구심점이 되어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윤애선: 긴 시간의 대담 감사드립니다. 40여 년간 선생님을 때로는 원거리에서 때로는 근거리에서 뵈었고 늘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었지만,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배울 점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현재 저서 Spatio-temporal Annotation of Natural Language(자연언어의 시공간 주석)의 집필을 거의 마치신 것으로 압니다. 저서의 출간을 기대하며, 지금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후학 곁에 스승님으로 남아주십사 하는 바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이홍배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이원빈 교수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wblee@dju.ac.kr

이홍배 교수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1962)하시고,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학위(1966)와 박사학위(1970)를 취득하셨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1969~1970), 육군사관학교(1970~1982), 그리고 서강대학교(1983~2004)에서 36년간 영어와 언어학을 가르치셨다. 우리나라에 Chomsky의 생성문법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최소주의 문법 이론으로 진화하는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후학들을 위하여 생성문법과 최소주의 문법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시고, 한국언어학회 회장(1996~1998)을 역임하시면서 오늘날 한국 현대 언어학계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데 혼격한 기여를 하셨다. 현재는 「현대영어활용사전」을 집필하시고, ‘어느 노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영어 활용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계신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영문법, 생성문법 이론, 최소주의 통사론 등 영어 구문론과 통사론이다.

이원빈: 한국언어학회가 202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 언어학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후학 양성에 혼격한 공헌을 하신 학계 원로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 현대 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소중한 사료를 남기고자 ‘한국 언어학 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한국언어학회 제10대

(1996~1998) 회장을 역임하시며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학회 발전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신 이홍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후학들을 위해 오늘의 뜻깊은 대담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로 학회에 공헌한 바가 없는 이 사람을 대담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언어학회가 창립된 지 4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학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향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부족하지만 대담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원빈: 교수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담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은 좀 남달라 보입니다. 학부 시절에 인문학 분야의 언어학을 전공하신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일반적인 언어학자의 이력과는 다소 다른 출발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과 그 당시의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대다수의 회원님과는 달리 저는 어떻게 보면 학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학창시절은 엄격한 규율 아래 24시간 통제를 받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습니다. 학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만 외출이 허용되는 3금 생활(NO DRINKING, NO SMOKING, NO WOMEN)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195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1962년에 18기로 졸업했습니다. 저의 사관생도 시절은 우리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던 큰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인 1962년에는 4·19가 있었고, 4학년 때인 1963년에는 5·16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끝난 6·25의 상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빈곤한 국가의 생활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60년대 같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관생도 시절에는 나 자신도 대다수의 동료 생도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국 유학의 기회가 주어져서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매년 거액의 경제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원조에는 군사원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매년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에서 3~4명씩 선발하여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원빈: 그렇다면 교수님과 언어학의 인연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비롯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께서 언어학이라는 학문의 분야로 입문하게 되신 사연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미국 유학길에 오르시면서 언어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제가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관학교의 교수 확충계획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사관학교의 영어과는 1964년에 교수자원 확충을 위한 외국 유학 선발권을 배정받았고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의사 타진이 왔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학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학을 가려면 영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도 시절에 문과 계통의 과목보다는 이과 과목에 더 흥미를 느꼈으며, 성적도 이과 과목에서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언어학을 공부할 소질도 없고 학문적 배경도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가기 위해 억지로 언어학을 공부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이원빈: 교수님의 내적 동기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언어학과의 인연을 맺게 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학 공부를 위해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인 브라운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브라운대학교를 가게 된 사연과 교수님의 유학 생활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배: 저는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1964년 6월 1일에 미국 군용기를 타고 일본과 알래스카를 거쳐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까지 저는 브라운대학교에 대해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학 준비 중에 어느 선배님이 브라운대학교를 추천하였고, 지원서에 가고 싶은 대학으로 브라운대학교 외에 UCLA, 미시간대학교 등 몇 개의 대학을 써 넣었는데 브라운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입학 허가가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브라운대학교가 미국독립 12년 전에 설립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입학한 해인 1964년이 개교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대학교에서의 유학 생활은 시작부터 엉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언어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대학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영어 실력도 많이 부족해서, 브라운대학교의 가을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2개월

정도 Washington DC에 있는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김동진 선배가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언어학 개론 교과서로 쓸 확률이 높다면서 Gleason의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Linguistics>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이 책명에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linguistics'였으니까, 브라운에서의 나의 초기 유학 생활이 어떠했겠는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교실에서 홀로 수업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이원빈: 브라운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언어학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대학원 과정에서 통사론을 전공하셨는데, 언어학의 여러 연구 분야 중에서 통사론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홍배: 이 부분은 석사과정 단계와 박사과정 단계 둘로 나누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어학 공부를 시작한 1960년대 초기에 미국 언어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언어학 이론은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이었습니다. 특히 '-eme'(예: phoneme, morpheme)과 'allo-'(예: allophone, allomorph)의 개념 도입으로 세계 언어의 소리와 형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약점 중 하나는 '-eme'과 'allo-'의 개념을 문장구조의 분석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7년에 출판된 100여 쪽에 달하는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가 뒤늦게 문장구조 연구의 도구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브라운대학교 언어학과에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Robert Meskill 교수님이 1965년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지도하에 제가 석사 논문으로 <A Transformational Outline of Korean>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의 별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저의 1차 유학은 2년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1966년에 귀국하여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석진 교수님, 이맹성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선배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제가 미약하나마 변형문법을 전공하고 처음으로 귀국한 사람이어서 좀 바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국 1년 후인 1967년에 브라운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제안을 받았고, 그곳에서 3년이란 기간을 허락받고 2차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유학 생활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내가 떠나있던 1년 동안에 새로 온 학생들도 나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서 저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사론에서 주 관심사는 Chomsky의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1965)였으며 대학원 통사론 세미나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10여 명의 미국 학생들 중에 Chomsky의 이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당시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던 미국 대학원생 중에 나보다 앞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한 Raoul Smith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를 초청하여 유학 생활의 마지막 1년 동안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내 자랑 같아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분께 초청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당시 통사론 세미나에서 Chomsky의 이론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말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분과는 지금까지도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원빈: 1965년 이후 Chomsky의 Aspects 이론이 통사론 연구에서 관심의 중심에 있던 시기에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저의 박사학위 논문은 Aspects 이론에서 한 단계 변화한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967년 미국언어학회 주최 여름학교가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여름학교에 생성의미론의 주창자였던 George Lakoff, John Ross 등 젊은 학자들이 많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심층구조가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John killed Mary”的 심층구조는 “John caused Mary to die”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학위논문은 John Ross의 ‘On Declarative Sentences’(1968)의 Performative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간단히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봅시다.

- (a) 물가가 내렸다.
- (b)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서술문들입니다. Austin 교수는 그의 저서 <How to Do Things

with Words>(1962)에서 (a)와 같은 서술문을 비이행문(constative sentence)이라고 부르고, (b)와 같은 서술문을 이행문(performative sentence)이라고 부릅니다. (a) 문장은 단순히 “물가가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이행문에는 형식논리에서 말하는 진위가(truth value)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 “물가가 내리지 않았다”면 (a) 문장은 거짓(false)이 됩니다. 그러나 (b)와 같은 이행문에서는 진위가가 아니라 적절성(appropriateness)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b) 문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법관이 법정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말해질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10년 정도 감옥에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부적절한 사람이 부적절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이 되므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Ross 교수는 비이행문의 심층구조에도 이행문이 있으며, 비이행문은 이 이행문의 종속절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서문 “Prices have fallen”的 심층구조는 “I say to you that prices have falle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에서 한국어에도 Ros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가 있으며, 나아가서 서술문뿐만 아니라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에도 각각 해당하는 이행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John Ross 교수는 MIT에 재직 중이었으며, 1968년도에 브라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고, 저의 박사학위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원빈: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교수님께서는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 국내 언어학계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유학 생활을 마감하시고 귀국한 1970년대 초반의 국내 언어학계 동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저는 1970년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해 보니 2~3년 전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언어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활발한 모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언어학 모임을 가졌고 서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유학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셨고, 마침내 1975년에 한국언어학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원빈: 1970년대 교수님께서는 신진 언어학자로 미국 언어학의 최신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보급하시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1970년대 교수님의 학술연구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사실 중요한 연구라고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좀 색달라서 제 학위논문을 주제로 여러 곳에서 특강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 몇 편을 한글학회 학술지인 <한글>과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학술지인 <언어 연구>에 실었을 뿐입니다. 1970년대 초에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귀국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희귀한 존재였으며, 지방의 여러 연구모임에도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지방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 학회를 가지면 지금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기용 교수님이 전북대학교에 계실 때,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학회가 합동으로 제주대학교에서 학회를 개최했고, 제가 초청 강사로 갔었습니다. 학회모임이 끝났는데 제주도 도지사가 제주대학교에서 학회모임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학회 임원들에게 화려한 만찬을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이원빈: 1977년에 교수님께서는 언어학도들의 기본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언어학 개론>을 출간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언어학 개론>을 집필하게 된 계기와 집필 과정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짧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언어학 개론>을 남기심 교수님과 이정민 교수님과 함께 집필하게 되었는데, 국어학을 전공하신 남기심 교수님이 대구의 계명대학교에 계실 때 대구-경북지구 언어학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서 처음 뵈었습니다. 얼마 후 남 교수님이 연세대학교로 오시게 되었고, 미국서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서울대학교의 이정민 교수님을 모임에서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이론에 바탕을 둔 <언어학 개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광화문에 있었던 광문사의 김병희 사장께서 출판을 맡기로 하고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필을 시작한지 1년여가 지나도 원고에 대한 아무 소식이 없자 김병희 사장께서 광화문의 한 여관에 저희들을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성문법 이론에 기초를 둔 통사론과 음운론 그리고 의미론을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이원빈: 1975년 한국언어학회가 창립하면서 교수님께서는 창립 멤버로서 학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학회 창립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각종 소형 언어학 모임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언어학회 창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학회창설을 준비하며, 어느 분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할 것인가가 제기되었고, 만장일치로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학술원 회원이신 장석진 교수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장석진 교수님이 극구

사양하셔서 교수님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립 회원으로서 창립 때부터 한국언어학회에서 편집이사, 연구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했으며,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원빈: 설립 초창기 한국언어학회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을 거라 생각됩니다. 1970년대 한국언어학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나요?

이홍배: 현재의 한국언어학회도 마찬가지겠지만, 1975년에 만들어진 한국언어학회는 시작부터 정말로 공부하는 학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여러 유사한 학술단체와는 달리, 한국언어학회는 매년 2회씩 겨울과 여름에 며칠에 걸쳐 논문발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저서를 분야별로 공부하는 학회가 열렸으며, 항상 많은 수의 회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열성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경우 학회를 서울과 지방이 번갈아 가며 열었으며, 많은 대학이 한국언어학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많은 대학의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원빈: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교수님의 전공 분야인 통사론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GB-이론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국내 학계에 GB-이론과 관련된 학술강연, 연구논문 발표, 저·역서 발간 등 왕성한 학술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1980년대 교수님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배: 1981년에 출판된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의 이론을 우리는 종종 GB-이론이라고 부르지요. GB-이론은 Aspects 이론에 획기적인 변화를 준 통사론으로서 많은 언어학도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1982년 겨울학회와 1984년 겨울학회 2차에 걸쳐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에 대한 특강을 했으며, 1990년대 초에 최소주의 통사론이 나올 때까지 학회에서 약 20회에 걸쳐 GB-이론의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GB-이론에 기초한 10여 편의 논문과 저서인 <지배-결속이론의 기초>, 번역서인 <통사론>(Radford의 <Transformational Syntax>)과 <지배-결속론>(Chomsky의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원빈: 1980년대 중반에 교수님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되십니다. 1984년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신촌을 언어학의 메카로 발전시키시게 됩니다. 서강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과 20년간 서강대학교에 봉직하시면서 이룬 업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저와 서강대학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귀국하자마자 서강대학교에서 강의 의뢰가 와서 강사로 출강을 나가게 되었고, 그 당시 학과장으로 계시던 미국인 브루닉(Breunig) 신부님이 군에서 예편하고 서강대학교로 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이 10년 이상이나 남았던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4년에 군 복무 의무기간이 종료되었고 이미 신부님은 타계하시고 안 계셨으나,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학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김용권 교수님과 김태옥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서강대학교에서 제2의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는 언어학 전공 교수가 김태옥 교수님과 저밖에 없었으며, 학교를 설득하여 음운론의 김영석 교수님, 의미론의 이성범 교수님, 사회언어학의 채서영 교수님을 모셔오게 되었고, 또한 심리언어학을 전공하신 조숙환 교수님까지 함께하셔서 언어학 분야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서강대학교에서 재직하였으며, 은퇴할 때까지 29명의 박사 논문과 52명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것이 나의 40여 년에 걸친 교수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원빈: 1990년대는 Chomsky의 생성문법 이론에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됩니다. 소위 최소주의 이론(minimalist theory)의 등장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1990년대에도 학회 강연, 연구논문 및 저·역서 발간 등을 통해 최소주의 통사 이론을 후학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1990년대 교수님의 주요 연구 활동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Chomsky의 <The Minimalist Program>이 출판된 것이 1995년이었고, 제가 언어학회에서 최소주의 통사론(Minimalist Syntax) 특강을 시작한 것이 1996년 겨울 학회였으며, 그 후 은퇴할 때까지 7회 정도에 걸쳐 최소주의 통사론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최소주의 통사론에 대한 10여 편의 논문과 저서로는 <최소주의>(공저), <최소주의 통사론 강의>, <최소주의 통사론>, <최소주의 통사론>(개정판)을, 역서로는 <최소주의 통사론과 영어>(Radford의 <Syntactic Theory and the Structure of English>)와 <최소주의 통사론>(Radford의 <Syntax: A Minimalist Approach>)을 출간했습니다.

이원빈: 교수님께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언어학회 회장으로서 학회의 양적·질적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1997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어렵고 험난했던 시기 중의 하나인 IMF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국제언어학학술대회인 SICOL-97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SICOL-97을 회상하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한국언어학회 회장으로 SICOL-97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배: 오래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이 없었는데, 여기 진행자로 나오신 이원빈 교수가 그 당시의 자료를 제공해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ICOL-97은 서초구 양재동의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열렸습니다. 나라는 IMF 사태를 맞아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여러 나라 학자들을 초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제적 행사의 진행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여러 부분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여서 국제전화나 FAX로 연락을 주고받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교수님과 학회회원님들 그리고 교육부(학술진흥재단),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프랑스 대사관, 현대그룹, 선경그룹, 대우자동차, 한신문화사, 시사영어사 등 여러 기관이 도움을 주셔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의 언어연구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에서 9명의 학자가 초청되었으며 많은 국내 교수님들도 논문발표를 하셨습니다. 학회 진행은 서강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맡아주었습니다.

이원빈: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교수님의 혼신과 노력으로 굳건하게 학회 발전의 초석을 다져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이제 2000년대로 접어들어 2004년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까지의 이야기를 교수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통해 다수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시기 교수님의 저술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배: 소속이 영어영문학과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순수 통사론이 아니라 영어 통사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지요. 그렇다고 GB-이론이나 최소주의 이론에 기초한 영어 통사론을 가르칠 수도 없고 자연히 전통문법 이론에 기초한 영문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강의록을 정리하니까 <고급영문법>(2001)과 <표준 활용 영문법>(2003)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Aspects 이론에 기초한 Soames와 Perlmutter의 <Syntactic Argumentation: The Structure of English>를 학부생들에게 강의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최소주의 이론을 강의하게 되었고 그 강의록을 정리하여 <최소주의 통사론 강의록>(2001)

과 <최소주의 통사론>(2002) 그리고 <최소주의 통사론 개정판>(2003)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원빈: 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에서, 은퇴 후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이홍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7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42년간(육사 22년, 서강대학교 20년) 군과 교직에 있었으며, 어떤 분은 은퇴하면 어딘가 허전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마음이 편안합니다. 시간에 쫓겨 내일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즐겁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일주일 몇 번 헬스센터에 가서 좀 걷는 척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칩니다. 지하철도 무료여서 좋은데 지난번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더니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해서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빈: 지금 뵈어도 교수님의 모습은 은퇴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현대영어활용사전>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홍배: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영어표현에 나타날 수 있는 문법적 오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하고 있었는데, Michael Swan의 <Practical English>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현대영어활용사전>을 집필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되었으며, 부족하지만 2019년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 책에 약 200쪽을 늘리고 내용을 보충한 약 1,200쪽의 개정·증보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이원빈: 이제 교수님과의 대담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배: 별로 보여줄 것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 후학들에게 무슨 남기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학술 활동 환경이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새로운 논문이나 책을 지금처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분이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오거나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었던 양서 수입서점이 수입한 책들 중에서 우연히 귀한 책을 접하게 되면, 그것들을 복사하여 나누어 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원서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광문사와 한신문화사가 한국의 언어학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언어학회뿐만 아니라 언어학의 제반 분야에 따라 별도의 학회가 있어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는 항상 내 자신을 보면 언어학 분야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의반 자의반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교수까지 되었으니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한참 부족한 나에게 배운 여러분들께 항상 미안할 따름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학은 다른 인문분야 학문과는 달리 잠시 게을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태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보람 있고 행복한 연구 활동과 교수 생활을 하시고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라는 마음을 품고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빈: 오늘 대담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하신 이홍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현대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신 교수님의 헌신과 노고는 후학들에게 좋은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마르지 않는 학문에 대한 열정에서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교수님은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늘 푸른 청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

.....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雪]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氷]에 갇힐 때
그대는 스무 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 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박병수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임경섭 교수
(전)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viclim@naver.com

박병수(朴秉洙)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사(1963년)와 대학원 석사(1968년), University of Pittsburgh 대학원 언어학과에서 박사(1972년)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학부와 대학원에서 32년간(1973~2004년) 영어, 영어학, 언어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언어학회 13대 회장(2000~2002년), 국제한국언어학회(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ICKL) 회장(1996~1998년),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1996~1998년), 한국영어학학회 회장(2003~2005년)을 역임하셨습니다. 2018년에 인명록 *The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습니다.

임경섭: 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학회에서 준비하는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 현대언어학을 이끌어 온 학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언어학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언어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여러 교수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시고 학회의 초석을 놓으신 박병수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의 학문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저에게 처음으로 언어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이승환(李承煥) 선생님(1935-2004년)이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이셨던 선생님께서 1967년 봄에 경희 대대학원 영문과에 강의를 나오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으로부터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1960년대 초에 미국 UCLA 언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변형생성 문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 학계에 도입하신 공로자이셨습니다. Noam Chomsky의 명저 *Syntactic Structures*(1957)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1966)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셨습니다(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이혜숙 교수님과 공역). 이 책과의 만남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과 기쁨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책을 가지고 영어 통사론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마치 현란한 마술을 보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어의 동사구(e.g., 'goes,' 'went,' 'can go,' 'should have gone,' 'could have been going' 등)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당시 저를 흥분케 했던 Affix Hopping은 이제 영어 통사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Syntactic Structures*의 이론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론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학문 발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¹ 선생님의 지도 아래 변형생성문법을 공부한 것이 저를 언어학자가 되게 해 준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이승환 선생님 최초의 언어학 학생이 된 것은 저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저는 변형생성문법을 공부할 목표를 세웠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임경섭: 교수님의 언어학 입문 스토리가 저의 대학생 시절에 교수님을 통하여 영어학을 처음 만날 때의 과정과 너무 닮아 매우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셨는데 대학원 선택과 대학원 생활의 뒷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병수: 저는 1968년 여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 언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UCLA에도 원서를 냈지만 한 달 간격으로 UCSD에서 먼저 입학 허가가 나오는 바람에 UCSD로 가게 되었습니다. 1968년 8월 초 UCSD 캠퍼스가 있는 La Jolla에 도착했습니다. 어학실습실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조교 자리도 얻고 등록금은 loan으로 해결하는 등 입학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Foreign Student Advisor's Office에서 소개해준 숙소도 정했습니다. 캠퍼스 인근에 있는 Scripps Institute에서 일하는 분의 대저택이었는데, 그 아들이 쓰던 아담한 독채를 rent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조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UCLA에서 입학 허가 통보가 온 것이었습니다. 곧 LA로 달려가 학과장 Robert Stockwell 교수님을 만나서 그동안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으나 Stockwell 교수님은 별로 귀담아듣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UCLA로 오는 것을 전제하고 Foreign Student Advisor를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외국 학생에게 주는 특별 장학금(등록금과 생활비 일부 포함)을 제시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입학 절차를 끝내고 일단 UCSD로 돌아왔으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LA냐 SD냐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망설임 끝에 결국 UCSD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유학의 첫해인 UCSD에서의 일 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새로운 깨우침과 배움에 집중한 제 생애 가장 귀중한 시기였습니다. 1968년 가을, 겨울, 봄 학기 1년간 Ronald Langacker 교수님과 Edward Klima 교수님에게 변형생성문법을, Sanford Schane 교수님에게 음성학과 음운론을 배웠습니다.

임경섭: UCSD에서 Pittsburgh 대학원으로 옮기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교수진과 학위 논문에 관하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1969년 봄 학기에 University of Pittsburgh 언어학과 박사과정에서 Teaching Fellowship을 받게 되어 그쪽으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Robert Parslow 교수님에게 음운론을 배웠고, Charles Bidwell 교수님에게 형태론을 배웠는데, 그때 공부했던 두 가지 교재 Kenneth Pike의 *Phonology*와 Eugene Nida의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책들은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꼽혔던 책이었습니다. 방대한 언어자료에 바탕을 둔 음운 분석과 형태소 분석 문제집이었는데 학생들은 매주 문제를 나누어 받아 해답을 찾고 이를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문제를 푸느라 밤을 새웠던 추억이 새롭습니다. 저의 지도교수이었던 Charles Bidwell 교수님은 당시 미국 언어학계에서 슬라브 언어학의 대가였습니다. 불행히도 1970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이었던 Edward Anthony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를 맡아 주셨습니다.

언어철학 전공인 철학과의 Steven Davis 교수님에게 변형생성문법을 계속 배우고 있었고, 심리학과의 Bill Sypher 교수님으로부터는 심리언어학을 배웠습니다. 당시 심리학자들은 변형규칙의 심리적 타당성에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1972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학위논문 *A study of the Korean verb phrase and noun phrase complementa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verb ha*는 한국어 동사 보문구조와 명사 보문구조에 대한 변형문법적 접근이었습니다. ‘좋다/

좋아하다,’ ‘밉다/미워하다’ 등과 관련된 동사 보문구문, ‘~것 같다/~척 하다/~듯 하다/~모양이다’ 등과 관련된 의존명사 보문구문, 중주어 구문 등을 다루었습니다. 박순함 선생님(1967, University of Michigan), 송석중 선생님(1967, Indiana University), 이정로 선생님(1969, Indiana University), 이홍배 선생님(1970, Brown University)에 이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나온 한국어 통사론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1973년에 귀국하여 학위논문의 제2장 동사 보문구조 부분을 수정 증보해서 ‘The Korean Verb *ha* and Verb Complementation’이라는 제목으로 『語學研究』(vol. 9, no. 2, 1973)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발표한 제 최초의 논문이었고, 해외에서 발표한 제 최초의 논문은 ‘On the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 in Korean, *Linguistics* 100(1973, Mouton)이었습니다.

임경섭: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신 후 국내에서 언어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세계 언어학의 흐름을 정확히 읽으시고 당시 주류이던 변형생성문법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변형문법이론 방향으로 꾸준히 새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개척자의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헤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병수: 1980년대 초까지 학계에서 변형생성문법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으나, Chomsky의 *Government and Binding*이 나왔을 무렵(1980년대 초반 이후) 저는 비변형문법(non-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에 대한 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1981년 한국언어학회 주최로 열렸던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SICOL-1981)에 초청 연사로 왔던 Gerald Gazdar 교수님으로부터였습니다.² Gazdar 교수님은 Ewan Klein, Geoffrey Pullum, Ivan Sag 등의 학자들과 더불어 변형문법의 대안으로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GPSG)의 개발을 주도한 분입니다. 저는 그 무렵 점점 추상화되어 가던 Chomsky 통사론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여서 GPSG에 곧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후 두 차례의 연구년에 연구교수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는 변형규칙이 없는 생성문법 통사론의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1983년에 문교부의 교수 국비 해외파견 연구지원을 받아 Geoffrey Pullum 교수님의 초청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UCSC)에 방문연구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Pullum 교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변형생성문법 GPSG의 장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언어학 연구 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Santa Cruz에서 Stanford 캠퍼스까지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Ivan Sag 교수님의 강의를 청강하러 매주 다녔습니다. 이 무렵 그는 통제(control), 결속(binding) 등의 문제들에 천착하고 있었고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HPSG)의 이론적 기초 작업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Fulbright Research Fellow Award를 받아 Stanford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CSLI)에서 1년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오늘날 까지 저의 언어연구는 HPSG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설립된 CSLI는 Stanford University와 인근 관련 연구소의 언어학자, 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컴퓨터과학자들이 모여 상호 교류하는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여기에서 Joan Bresnan의 Lexical Functional Grammar(LFG), Ivan A. Sag의 HPSG, 그리고 Jon Barwise와 John Perry의 Situation Semantics(상황의미론)가 개발되었습니다. HPSG는 이곳 CSLI의 연구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 철학, 정보 이론 등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통사론과 의미론과 화용론을 통합하는 문법이론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의미론의 의미론과 화용론을 받아들여 통사론에 결합시킴으로써 통사, 의미, 화용의 양상을 완전히 통합하는 언어이론을 모색해 온 것이 HPSG입니다.³

임경섭: 교수님은 대학원 학생들에게 최고의 스승을 만나고 다양한 학문의 장을 열어주시기 위해 폭넓은 수업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의 대학원과 수업 교류도 허용하셨고, 토요일의 서울대 대학원 세미나와 월요일 소그룹 학회에 교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학문교류의 장을 연 선구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 유명학자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 학문교류의장을 여셨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학술대회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1989년 8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희대 언어연구소 주최로 경희대 광릉캠퍼스에서 개최되었던 Kyung H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 Studies가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청된 학자는 Geoffrey Pullum(당시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현재 University of Edinburgh), Ivan Sag(Stanford University), Carl Pollard(Ohio State University), Charles Kissoberth(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Takao Gunji(Waseda university), K. P. Mohanan(당시 Stanford University; 현재 University of Singapore)이었습니다. 비변형적 통사이론의 개발 현황과 기계번역 등 언어 공학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초청 학자들과 국내외 참석자 60여 명이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Linguistic Studies on Natural Language*(edited by Byung-Soo Park, 1992, Hanshin Publishing Co.)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가 HPSG의 한국 연구 센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그 광릉캠퍼스 국제회의가 두고두고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993년 여름 HPSG의 창시자인 Ivan Sag 교수님이 HPSG Ohio State University(OSU) Workshop을 조직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LSA Summer Institute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는데 OSU의 한 fraternity house를 한 달간 전세 내 합숙을 하며 HPSG를 주제로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는 대규모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약 50명의 학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석진 교수님, 이기용 교수님, 그리고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워크숍 이후 HPSG의 이론적 기반이 공고해지고 학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나의 언어이론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OSU 워크숍의 결과로 연례 HPSG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창립되었습니다. 매년 회의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를 열고 있는 HPSG 국제회의는 올해로 28회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CSLI에서 *Proceedings*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2002년에는 한국언어학회 여름연구회와 공동 주최로 경희대에서 열렸고 2012년에는 충남대에서 열렸습니다.⁴

임경섭: 국내외 연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규모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며 한국언어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학회 몇 개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1981년 제1회 SICOL에 참석했던 일본 소장 언어학자들이 한국 언어학의 발전에 감명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들의 제의로 한국-일본 형식문법 합동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매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고려대에서 열었던 제7차 워크숍에 대만의 Academia Sinica의 Churen Huang 교수가 참여했는데 이분이 중국의 동참을 제의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언어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한일 워크숍 고려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였던 Akira Ikeya 교수(동경교육대학), Churen Huang 교수, 그리고 저 이렇게 3자 합의로 차후 회의 명칭을 Pacific-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PACLIC)으로 정하고 한일중은 물론 태평양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대만에서 열었습니다. PACLIC이라는 회의 명칭이 공식화된 것은 1996년 경희대 회의에서였습니다. 이것이 PACLIC 10이었고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확산되었고, 올해 PACLIC 37이 필리핀에서 개최되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PACLIC은 한일중을 필두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Pacific-Asia 전역으로 확산되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언어학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PACLIC은 한국언어정보학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의 전신은 형식문법연구회(Seoul Workshop for Formal Grammar Theory)입니다. 1980년대 초에 시작한 이 연구회는 10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장석진, 이기용,

한재현, 이정민, 신수송, 이익환, 최기선, 김경학 등(이홍배 선생님도 가끔 참여) 여러 선생님들과 대학원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숭실대 한 강의실에 모여 묻고 대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구장희, 송석중, 김진우 교수님 등 미국의 한국 언어학 1세대 선배님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ICKL; 국제한국언어학회)는 1977년 창립대회를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개최한 이후 격년제로 해오고 있는데 작년 2021년까지 22회째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대회는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1982년 하와이 대학 대회, 1986년 미국 유타주 Provo 브리검 영 대학 대회, 1988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 대회, 1996년 호주 Brisbane 그리피츠 대학 대회, 1998년 하와이 대학교 대회, 2000년 체코 프라하 대회, 2002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회, 2006년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998년 하와이 대회 때는 제가 회장, James 윤혜석 교수님(일리노이 대학교)이 총무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논문초록 심사에 통과한 발표자는 발표할 논문을 대회 한 달 전에 논문작성을 완료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대한 논문집이 완성되었고 대회 시작 날에 참석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야별 Special Session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개의 분과를 만들고 분과마다 한 분씩 주제 발표자를 초청했습니다. 격포지 분과(William O'Grady 교수님), 관계절 분과(John Whitman 교수님), 복합 술어 분과(Peter Sells 교수님), 음절 분과(S. Robert Ramsey 교수님), 음운 중복 문제(김진우 교수님), 역사언어학 문제(Samuel Martin 교수님)이었습니다.⁵ 그즈음 막 은퇴하셨던 Martin 선생님(1924~2009년)의 정정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임경섭: 특히 한국언어학회에서 하신 일과 전임 회장으로서의 업적 등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수: 1992년 7월 26일~8월 3일 한국언어학회의 이기용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SICOL-1992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회의 주제를 New Directions in Linguistics for the 21st Century로 잡았습니다. 21세기를 8년 남겨둔 시점에서 21세기에 언어학의 새로운 방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패널 토론회를 조직했습니다. 토론자는 Ferenc Kiefer(Budapest University), William Labov(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정민(서울대), Stanley Peters(Stanford University)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에 걸쳐 세계 언어학계를 지배했던 통사론

중심의 Chomsky 언어학은 서서히 독무대의 위치에서 물러나고 인지언어학, 사회언어학, 의미론, 화용론 등이 중심 무대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됩니다. 그 후 30년이 넘은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그 당시 SICOL-92의 패널 토론회의 진단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건전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13대 회장을 맡고 있었던 2002년 8월 5~7일에는 한국언어학회 여름연구회의 한 분과로서 제9회 HPSG 국제학술대회(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를 경희대 언어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의 김진우 교수님이 미국 교육계와 학계에서 한국 언어학과 한국어 교육에 공헌한 공로로 제10회 KBS 해외동포상(학술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는 우리 한국언어학회가 김진우 교수님을 추천하여 올린 성과였습니다. 교수님은 상금의 반을 우리 학회에 쾌척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학술단체에 기증하셨습니다.)

임경섭: 항상 선구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의 언어학의 방향과 한국언어학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Chomsky 혁명은 그 사상적 뿐만 아니라 합리론(rationalism;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서양 사상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언어학계는 물론 철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문사회학계에서는 합리론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경험론(empiricism; 경험주의)적, 행동주의(behaviorism)적 사고가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Chomsky는 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합리주의로 돌아가는 이론을 주창했고 그 추세가 언어학계를 반세기 동안이나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언어학계는 그 추세에서 벗어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형생성문법의 대안으로 대두된 구성론적 접근(Constructionist Approaches)^[6] 그러한 움직임을 설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Stanford의 HPSG와 UC Berkeley의 Construction Grammar가 융합하여 구성론적 접근의 선두주자 기호 기반 구성문법(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SBCG)이 되었는데, 그 이론의 효시인 Sag(2012)에서 그는 구성론적 접근은 구조주의 언어학(Structural Linguistics)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언명합니다.^[7] Chomsky의 변형생성 언어학 혁명으로 말미암아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전통에서 한동안 벗어나 있던 미국의 언어학이 21세기에 들어서 Chomsky 언어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구조주의 언어학의 궤도에 재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이 1950년대 이전의 그것을 단순히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은 의미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미의 문제는 언어학의 영역에 넣을 수 없다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구조주의 언어학의 한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만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의미론은 고사하고 통사론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의미론과 화용론 연구는 언어학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었기에 구성론적 접근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조주의 언어학을 지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은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성론적 접근은 자료 기반의 귀납적 방법론에 충실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⁸ 이는 미국 언어학의 한 세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흥미 있는 대목입니다. 20세기 초 이후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American Structural Linguistics)은 언어연구는 모름지기 귀납적 방법이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방했습니다.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 수집, 분류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론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연구야말로 가치 있는 과학적 연구라고 했습니다. 가설과 이론이 자료 수집과 분석을 선행하는 연역적 방법은 엄중하게 차단되어야 하고 그런 방법론은 언어연구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The only useful generalizations about language are inductive generalizations (Bloomfield 1933, *Language* p. 20).” 그런데 그 구조주의 연구방법론의 방향은 20세기 중반에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혁명을 만나 정면 도전을 받았습니다. Chomsky는 행동주의의 거장 심리학자 B. F. Skinner의 저서 *Verbal Behavior*(1957년)의 언어관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언어학은 연역적 방법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역적 방법을 가로막는 것은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온 처사라고 주장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새로이 등장한 구성론적 접근은 언어연구의 올바른 방법론은 귀납적 방법이라고 천명합니다. 다시 한번 백팔십도 역전이 진행 중입니다. 세기말부터 20세기를 지나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두고 온전히 한 바퀴 큰 원운동을 한 셈입니다.

셋째, 구성론적 접근은 언어의 핵심부 현상과 주변부 현상의 차별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인위적인 2분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Chomsky가 심층구조(deep structure)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의 계층을 구별하고 동시에 언어능력(linguistic knowledge)과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의 2분법을 가정한 다음 심층구조와 언어 지식을 표면구조와 언어수행의 우위에 놓고 그것을 언어연구의 중심 과제로 간주해 온 것이 Chomsky 언어학의 기본 입장입니다. (I-Languages,

E-Languages 등 다른 용어들이 나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용어 차이뿐이지 Chomsky의 기본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관용적 표현들이나 예외적이거나 불규칙적인 현상들 그리고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들, 비문과 정문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듯한 문장들 예컨대, Goldberg (2019)의 책 제목에 나온 “Explain me this.” 같은 유사문장들의 문제 등은 의례 주변부의 부차적인 문제이며 언어수행의 문제이므로 그런 것들은 언어 지식의 핵심 과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다룰 것이라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구성론적 접근은 그러한 연구 태도야말로 실질적인 언어연구를 외면하는 평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구성론적 접근은 주변부라고 간주되어 온 갖가지 현상들을 언어이론 연구의 중심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언어의 실체가 표면구조이며 언어수행이라고 보는 구성론적 접근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넷째, 구성론적 접근은 어휘(lexical items)와 구절(句節 phrases)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휘 기호(lexical signs)와 절 기호(phrasal signs)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고 그 둘은 하나의 연속체(continuum)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Chomsky의 언어습득 이론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Chomsky 언어이론에서는 어휘부(lexicon)과 문법부(grammar)는 엄격히 구별되는 모듈입니다. 어휘부 모듈은 단어들의 리스트이고 문법부 모듈은 유한수의 규칙들을 가지고 무한수의 구와 절을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언어습득 과정에 있어서 이 두 모듈의 습득은 근본적으로 다른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휘부에 있는 어휘들의 습득은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암기하는 과정이지만, 무한수의 구와 절과 문장들의 습득은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과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Chomsky 언어습득 이론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구성론적 접근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문장의 습득과정이 단어의 습득과정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 즉 양자 사이에 “modular dissociation(모듈의 차단)”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단어, 형태소, 문장 유형 등 자연언어의 이질적 언어형식들은 전부 공통의 작동원리와 학습원리에 따라 통합된 처리 체계에 의해 습득되고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⁹ 그러한 작동원리와 학습원리의 예로 Tomasello(2003)는 “attention-reading skill(주의를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는 인지 능력)”과 “pattern-finding skill(언어기호 사용의 패턴 즉 사용된 기호들의 반복되는 요소 또는 본보기를 발견하는 인지 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Kim & Michaelis(2020: 16)는 언어란 Chomsky가 주장해온 것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생득적 자질(biological endowment)”이 아니고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산물(a cultural product, shaped by communicative needs)”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물의 내용물인 단어도 구도 문장 표본도 모두 다 패턴들인데 그런 패턴들은

반복사용을 통해 기억 속에 정착되고 관습화된 일상사들(routines)이라고 봅니다.¹⁰ Chomsky와 그 지지자에게 언어학은 생물학이(었)지만 구성론 언어학자에게 언어학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인문사회과학인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Jon Barwise와 John Perry가 제시한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언어의 본질을 형식적 논리 구조로만 다루려고 했던 논리실증주의적 의미론과 달리 자연언어의 본질을 인간행동으로 보고 언어의 의미는 언어표현과 언어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¹¹ 그래서 HPSG는 처음부터 상황의미론을 대폭 수용했던 것이고 이제 Berkeley Construction Grammar의 언어 사용 중심의 언어연구방법을 받아들여 형식화한 SBCG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적 문법론, 즉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을 확실히 아우르는 언어 이론에 다가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¹²

애당초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을 인정하지 않고 아기의 모국어 습득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가? 습득 과정이 Chomsky의 주장처럼 학습할 수 없지만 학습하는 과정¹³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으니까 학습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최근에 바로 그러한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¹⁴ 대표적으로 사용(용도 또는 용법)에 바탕을 두는 언어습득(usage-based language acquisition)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언어습득이란 기본적으로 재능 학습(skill learning)이라는 설명입니다. 가령 자전거 타기나 악기 연주와 같은 재능의 습득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촘스키 언어학에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는 발상입니다.) 언어습득은 감각능력과 인지능력에 서로 연결된 습득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습득은 다른 여러 습득과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습득을 위한 별도의 습득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용에 바탕을 둔 언어습득 이론이 설득력이 있다면 Chomsky의 생득적 UG에 의한 습득이론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고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바탕 한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Chomsky 자신이 최근에 자신의 지론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¹⁵ Chomsky는 이 논문에서 종래에 특이하다고 여겨졌던 우리 인간의 언어 능력이 실은 다른 인지 과정들의 수정 보완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Adele Goldberg 등 구성론적 접근의 언어학자들은 Chomsky가 자신의 언어습득 이론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 아니냐고 평가했습니다.¹⁶ Pinker & Jackendoff에 의하면 Chomsky는 인간 언어의

특징은 오직 회귀성(recursiveness)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이 주장마저도 근거가 회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동물들의 능력에도 회귀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언어능력 이외의 다른 능력에서도 회귀성이 작동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Chomsky 언어학에서 줄곧 인간 특유의 특징들이라고 내세워 온 이런 특성들이 모두 실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것들에 기대어 온 Chomsky의 언어습득론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임경섭: 교수님의 좋은 말씀이 한국 언어학의 발전에 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간단히 소개하며, 언어학자의 길에 들어선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저는 2004년 정년 후 두 가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하나는 생성문법의 이론을 실용 영문법에 응용하는 작업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교의 언어철학 공부입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우리나라의 제1세대 영어학의 원로학자이셨던 조성식(趙成植) 선생님의 격려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3년에 제가 영문법연구회(한국 영어학학회의 전신)의 한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리얼리즘 영문법 연구」를 좋게 평가하시고 그것을 심화 확장해서 앞으로 실용적인 영문법 연구에 적용해 보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 노력의 결실로 2014년 『현대 영문법의 이해: 영어 문장의 생성 원리』(한국문화사)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동사의 유형과 용법, 전치사와 전치사구 동사, 형용사의 유형과 용법, 명사의 성질과 유형, 관사의 용법 등을 다루었습니다.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의 분류와 분석에 HPSG의 분류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사의 용법은 의미-화용론적 맥락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초출(初出)의 정관사의 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¹⁷

두 번째 관심사는 「언어도단의 길」(『인문언어』 제19권 1호(2017))과 「離言絕慮(이언 절려)의 의미론」(2019, 『인문언어』 제21권 2호)으로 발표했습니다. 「언어도단의 길」은 삶과 세계의 궁극적 진리 추구는 언어의 길이 끊어진 자리, 즉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언어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離言絕慮(이언 절려)의 의미론」에서는 금강경¹⁸에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 그러므로 티끌이라고 말한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라는 패턴의 진술문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를 바로 읽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는데 그 중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을 언어표현 자체로 읽고 두 번째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세계’라고 말한다.)¹⁹

앞서 임경섭 교수가 우리 현대 언어학의 나아갈 방향을 물었습니다. 20세기 Chomsky의 언어학 혁명으로 인하여 언어학의 연구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고 언어 연구의 중요성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폭넓게 새로이 인식되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고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homsky 언어학이 내세운 언어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Chomsky 언어학은 인간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언어연구의 목표라고 우리에게 항상 강조해 왔으나 우리는 아직도 그로부터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기의 모국어 습득이 과연 어떠한 과정인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토머스 쿤의 용어로 말해 Chomsky 언어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 새로운 언어연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 그것은 우리 21세기 언어학자의 몫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 언어학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초반에 대두된 구성론적 접근이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크게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경섭: 긴 시간의 대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새로운 학문세계를 열어주시며, 마음까지 만져주시는 좋은 스승이셨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스승님으로 남아주시길 바라며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¹ 그 이름도 기묘한 ‘접사 깡충 뛰기’ 변형규칙이었다. 동사구 VP는 조동사 Aux(iliary)와 본동사 V로 구성된다. Aux는 ‘시제’(즉 s나 zero나 past 중 하나)와 법조동사(M(odal))와 ‘have+en’과 ‘be+ing’으로 구성되는데 시제만 의무(obligatory) 요소이고 나머지들은 모두 선택(optional) 요소이다. 그래서 예컨대 past--can, past--have+en, past--be+ing, past, past--can--have+en--be+ing 등의 연쇄(string)가 얻어질 수 있다. 여기에 동사(V)로는 예컨대 ‘go’가 택해져서 past--can--go, past--have+en--go, past--be+ing--go, past--go, past--can--have+en--be+ing--go 등이 구성되고, 그 연후에 Affix Hopping이 적용된다. 이 변형규칙은 past, present, en, ing 등 Affix로 규정된 요소를 각각 그 오른쪽에 있는 요소의 뒤로 이동시키는 규칙이다. 그래서 Affix Hopping이 적용되면 #can-past#go#, #have-past#go-en#, #be-past#go-ing#, #go-past#, 또는 #can-past#have#be-en#go-ing#이 도출되고 여기에 형태음운규칙들이 적용되면 ‘could go,’ ‘had gone,’ ‘was going,’ ‘went,’ 또는 ‘could have been going’ 등 실제 형태의 동사구들이 도출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제, 조동사, 완료형, 진행형 등의 동사구 분석을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가령 ‘could go’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형 조동사—동사》 연쇄에서 ‘could’를 ‘can’과 past 두 요소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좋으나 그 앞뒤 순서를 past가 ‘can’을 선행하도록 해서 past--can#go#라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past가 ‘can’ 뒤로 이동하게 하는 Affix Hopping 변형규칙을 적용해 can--past#go#이라는 구조가 도출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없는 어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다 와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언어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형태 통사론적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Gerald Gazdar, Geoffrey K. Pullum, & Ivan A. Sag (1982) “Auxiliaries and related phenomena in a restricted theory of grammar,” *Language* 58, 591-698 참조]

² Geoffrey Pullum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Gerald Gazdar & Geoffrey K. Pullum (1982) “Subcategorization, constituent order, and the notion ‘head’,” i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ed.

by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95-209 (Hanshin Publishing Company, Seoul, Korea)]. 비변형문법 통사론의 효시였던 GPSG의 이론적 토대를 논하는 이 두 개척자의 논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³ 일찍이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 있는 장석진 선생님이 HPSG를 정보기반의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통합문법이라고 부른 것은 HPSG의 역사와 함께 CSLI의 연구 환경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장석진(1993)『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도서출판 언어와 정보], [장석진(1987) “HPSG: 통사와 의미의 HPSG 통합 기술,”『최준기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장석진(1989) “자연언어처리를 위한 통합문법: 하위법주화와 어휘적 잉여성,”『이혜숙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⁴ 충남대 회의는 충남대 언어학과 류병래 교수님의 혼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회의에 실린 논문은 모두 HPSG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읽을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Kyung Hee University, Seoul 5-7 August, 2002, eds., Jong-Bok Kim and Stephen Wechsler;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July 18-21, 2012, eds., Stefan Müller © CSLI Publications]

⁵ 933쪽 분량의 논문집 Park & Yoon(1998)에 92편의 논문이 실렸다.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회의가 크게 성공적이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ICKL의 총무이사 겸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James 윤혜석 교수님(당시 서울대학교; 현재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 [Byung-Soo Park & James Hye Suk Yoon (1998) eds.,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July 6-9, 1998,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한국문화사]

⁶ Charles Fillmore의 Berkeley 구성 문법(Berkely Construction Grammar), Ivan Sag의 기호 기반 구성 문법(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SBCG), George Lakoff의 metaphor와 embodiment 기반의 언어관, Ronald Langacker의 인지문법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구성론적 접근(Constructionist Approach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⁷ “It is clear that construction-based grammar has deep roots in Structural Linguistics.” [Ivan A. Sag (2012),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An informal synopsis,” p. 70 in H. Boas & Ivan A. Sag, eds., *Sign-Based Construction Grammar*, pp. 69-202, Stanford, CA: CSLI]

⁸ SBCG의 한 교과서 [Jong-Bok Kim & Laura A. Michaelis (2020) *Syntactic Constructions in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 1.4]

⁹ “Rather, we suggest that the heterogeneous set of linguistic forms that occur in any natural languages (i.e. words, morphemes, phrase structure types) may be acquired and processed by a unified processing system, one that obeys a common set of activation and learning principles.” [Elizabeth Bates & Judith Goodman (1997) “On the inseparability of Grammar and the Lexicon: the evidence from acquisition, Aphasia and real-time processing,”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2, pp. 507-584. Kim & Michaelis(2020: 15)에서 재인용]

¹⁰ 구성론적 접근은 Ludwig Wittgenstein(1889~1951)의 언어 게임(language-game)의 언어관과 용도 의미론(use-theory of meaning)의 방향과 공통점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Gottlob Frege, Bertrand Russell, G. E. Moore 등과 더불어 20세기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22년에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논리철학 논고)를 출간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으며 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교과서가 되었다. 사후에 *Philosophical Investigations*(1953년)이 출간되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유일한 저서이자 그의 대표작이다.

(i) 용도 의미론. 비트겐슈타인은 한 언어표현, 예컨대 단어나 문장의 의미는 그 표현의 사용 그 자체라고 말한다. “For a large class of cases--though not for all--in which we employ the word “meaning” it can be defined thus: 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Paragraph 43)." 비트겐슈타인은 의미와 사용을 동일시해서 의미를 언어사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란 사용 그 자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언어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그 표현이 어떻게 쓰이느냐고, 쓰였느냐고 묻는 것이 의미론의 올바른 질문이라고 말했다.

(ii) 언어게임. 자연언어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상언어 활동이라고 보고 그것을 “언어 게임 (Sprachspiel, language game)”이라고 불렀다. 게임에 축구, 야구, 테니스, 포커, 고스톱, 사냥, 바둑, 장기, 낚시 등등 온갖 종류의 게임이 있듯이 언어게임에도 일상대화, 토론, 자연과학, 철학, 정치학, 정치, 비즈니스 등 갖가지 언어게임들이 있다. 축구 게임에 규칙이 있어서 허용되는 동작과 금지되는 동작이 있듯이 테니스 게임에도 규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동작과 할 수 없는 동작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축구 규칙과 테니스 규칙이 달라서 축구 게임에서 허용되는 동작이 테니스 게임에서 허용되는 동작과 다르고 바둑과 장기도 각기 다른 규칙이 있어서 바둑에서 의미 있는 동작과 장기에서 의미 있는 동작이 서로 다르다. 마찬가지로 일상언어 게임과 과학 언어게임도 각기 다른 규칙과 용어가 정해져 있어 일상언어 게임에서 의미 있는 행동과 과학 언어게임에서 의미 있는 행동은 서로 다르다.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이므로 게임에 따라서 언어표현의 사용은 다른 것이 되고 따라서 언어표현의 의미도 모두 다르게 정의되는 것이다.

(iii) 의미 없는 언어행위 vs. 의미 있는 언어행위.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진위판단이 실증적으로 가능한 자연과학의 언어만이 의미 있는 언어행위이고 진위판단이 불가능한 기타 모든 분야의 언어는 의미 없는 언어행위라고 했으나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의 언어관으로 이를 극복하고 모든 언어활동은 각기 해당 언어게임 안에서 모두 의미 있는 언어행위가 된다고 했다.

¹¹ [Jon Barwise & John Perry (1983) *Situations and Attitudes*, Bradford Books. Cambridge, MA: MIT Press]

¹² 앞서 나온 Sag (2012) p.88 참조.

¹³ Poverty of stimulus에 바탕을 둔 학습 가능성(learnability)의 가설 즉 아기가 접하는 언어자료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한데도 아기는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완벽한 언어습득자가 되는 현상에 대한 Chomsky의 설명방식을 말한다. 단적으로 Chomsky는 아기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운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¹⁴ [Nick Chater & Morten H. Christiansen (2018) “Language Acquisition as Skill Learning,”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21.], [Christiansen, M. H. & Nick Chater (2016) *Creating Language: Integrating Evolution, Acquisition, and Processing*, MIT Press], [Michael Tomasello (2005)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김창구역) (2011)『언어의 구축: 언어 습득의 용법 기반 이론』, 한국문화사)], [Adele Goldberg (2003) “Constructions: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languag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5), 219–224], [Adele Goldberg (2019) *Explain Me This. Creativity, Competition, and the Partial Productivity of Construc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 참조

¹⁵ [Hauser, M. D., Chomsky, N., & Fitch, W. T. (2002) “The faculty of language: What is it, who has it, and how did it evolve?” *Science* 298, 1569–1579]

¹⁶ 위의 Goldberg(2003)와 (2019), 그리고 Pinker & Jackendoff(2005) 참조. [Pinker & Jackendoff (2005) “The faculty of language: what’s special about it?,” *Cognition* 95, 201–236]

¹⁷ 명사구를 부정관사가 수반되는 부정명사구와 정관사가 수반되는 한정부정명사구로 나누고, 담화문맥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가 거듭 나타났는가에 따라 초출(初出)의 한정명사구, 중출(重出)의 한정명사구, 그리고 초출의 부정명사구 등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 모든 경우마다 왜 관사가 출현하고 부정관사가 출현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설명의 핵심은 “지시 공유의 조건”에 있음을 보여준다.

¹⁸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The Diamond Sutra)의 약칭.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단인 조계종의 소의경전(所依經傳, standard text)임

¹⁹ 석가세존은 Gottlob Frege(1848-1925), Bertrand Russell(1872-1970) 등 독일과 영국의 철학자들이 지시(reference) 의미론을 논하기 약 2천 5백 년 전에 그 개념을 사용했다. 그리고 삶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 진리는 자연언어로 써는 기술할 수 없으니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연언어를 떠나라고 설법 하셨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자연언어를 떠나서 살 수 있는가? 이 궁극적 질문에 7세기 신라의 원효 대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를 버린다고(以言遣言)! 즉 언어를 버리는 도구가 언어라고.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이익환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지인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iyjhee@knsu.ac.kr

이익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1968년 문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1971년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 이어 1979년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중앙대와 연세대에서 30년간 영어학을 가르치셨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2008~현재)이시다. 또한 상명대학교에서 석좌교수(2008~2014)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국제언어학자회의(본부: 네덜란드)의 부회장(2014~현재)이시다. 그 외에도 한국인지과학회 회장(2000), 한국언어학회 회장(2002~2004), 한국영어학회 회장(2004~2006)을 역임하셨다. 활발한 학술 활동과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동창회 자랑스런 동문상(2005), 연세대학교 연구업적우수교수상(2003) 및 연세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5)을 수상하셨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미론과 화용론이다.

지인영: 한국언어학회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신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학문 세계를 대담을 통해 조명해 보면서, 교수님들께서 한국 언어학계와 한국언어학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살펴보는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언어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 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연세대학교 이익환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담을 맡은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지인영입니다. 교수님 안녕하

세요? 한국언어학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모신 이익환 교수님의 경력을 한국언어학회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76년에 한국언어학회 회원으로 인연을 맺으신 후, 학회의 편집이사,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등으로 두루 봉사하시고, 2002~2004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1981년 한국언어학회가 주최한 SICOL-81(1981-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에 조직위원회의 위원 및 논문 발표자로서 참여하셨습니다. 그 이후 SICOL-86, SICOL-92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으며, 특히 2008년 한국언어학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CL-18)에서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 후 이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언어학자회의(Comité International Permanent des Linguistes: CIPL)의 집행위원회 위원(2008~2014)을 지내셨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러한 국제학회 조직 활동을 통해 한국언어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2023년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세계언어학자대회(CL-21)의 조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인터뷰 시작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익환: 귀중한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저는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인영: 네, 감사합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평생의 학문,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공 분야로 결정하시게 된 동기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환: 이 경우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훌륭하신 은사 이맹성, 전상범, 황적륜, 문용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분들에게서 언어학에 대한 입문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원 시절 이맹성 선생님의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게 된 것이 언어학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로마자로 기술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일이 흥미롭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기호논리학 입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논리학 강의를 수강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을 빌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제가 형식의미론을 전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사학위를 위해서는 문용 선생님의 친절하신 지도를 받아 영어 명사구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이 논문을 쓰면서 미력하나마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본 능력을 좀 터득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인영: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겠지요?

이익환: 1973년 텍사스대학교로 유학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유학하고 계시던 이기용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고맙고 훌륭한 선배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Stanley Peters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Robert Wall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적 언어학(mathematical linguistics)이라는 분야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Peters 선생님의 프로젝트에 조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Montague 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의미론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후 Peters 선생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평생 교육과 연구에 열중하며 교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인영: 네, 교수님께서는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시어 많은 제자를 배출하셨는데요. 연구와 교육에 어떻게 임해오셨는지요?

이익환: 우선, 제가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기용(고려대), 손한(연세대) 두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기용 선생님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손 선생님은 1976년 하와이대학 학술대회에서 뽑게 되었는데, 그 후 저를 연세대에 추천해 주셔서 연세대에서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민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며 지내는 행운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또 대학원의 제도상 이화여대 및 서강대 학생들과도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저의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인영: 네, 교수님께서는 연구에 충실하셔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시절 원생들이 집에 갈 때까지 교수님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학생들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지요. 강의를 잘하시어 2005년에 연세대학교 전 교수 중 5명에게 수여하는 ‘최우수강의교수상’도 받으셨지요?

이익환: 네. 2005년 연세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이상을 받았습니다.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과분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몇천 명이나 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모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으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분발하여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는 당부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3년에는 ‘연구업적우수교수상’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인영: 한국언어학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익환: 한국언어학회가 창립된 1975년 다음 해인 1976년 제가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1976년 하와이대학교 학회에서 만난 양인석(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추천으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선배 교수님들에게서 지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979년에 귀국한 후 1981년 한국언어학회는 3대 양인석 회장님의 주선으로 1981-서울국제언어학학술대회(SICOL-81)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는 학회의 편집이사로 심부름하게 되었지요. SICOL-81이 열리는 동안 심재기(서울대), 최재웅(현재 고려대 명예교수) 선생님과 협력하여, 외국에서 참여한 학자들의 안내와 교통편 등을 도우며 참여하였습니다. SICOL-81은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언어학회가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열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때를 기념하여 아직도 명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ICOL-81은 외국에서 참여한 여러 학자를 만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영: 선생님께서는 특히 국제 활동을 많이 하셔서 한국언어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이익환: 위에 언급한 서울국제언어학대회 SICOL-81이 열리기 2년 전부터 학술대회를 위한 준비로, 당시 발간되는 언어학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통사·의미론 분야의 주요 논문들을 함께 모여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장석진(서울대), 이기용(고려대), 이정민(서울대), 박병수(경희대), 김태옥(서강대), 이홍배(서강대), 신수송(서울대), 이영현(조선대), 임홍빈(서울대), 서정목(서강대), 장경희(한양대) 교수 등 국내의 저명한 선배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 공부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지요. 이 모임은 1982년 Seoul Workshop on Semantics and Pragmatics로 하나의 소 단체가 되었고, 제가 심부름하는 간사의 역할을 하였습

니다.

1982년에는 제13차 세계언어학자대회(CIL-13)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언어학자가 논문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한·일 두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공동연구회를 꾸려 한국과 일본에서 학술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The Pacific-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이라는 국제 학술대회로 성장하여 계속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1986년에는 2차 서울국제언어학대회 SICOL-86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학회 회장은 김석득(연세대) 교수님이었으며, 저는 총무이사로 도와 참여하였습니다. 대회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강당에서 잘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인영: 교수님께서는 미국 하버드 한국언어학 국제심포지엄(Harva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Korean Linguistics)에 깊이 관여하시어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태동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환: 저는 1984년 9월부터 1985년 8월까지 1년 동안 당시 재직 중인 연세대학교의 공식 추천으로, 하버드 온칭연구소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가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겨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에서 동아시아언어학학술대회 (Conference on East-Asian Linguistics)가 개최되어 그곳에 일반 참여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술대회에 한국 학자들의 발표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대단히 아쉬운 생각을 하며 Cambridge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당시 Amherst에서 공부하던 최재웅(현재 고려대 명예교수)의 차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차 안에는 당시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던 강영세(현재 국민대 명예교수) 선생님과 허구(현재 부산교 육대 명예교수) 선생님 그리고 제가 타고 있었지요. 이분들에게 제가 “하버드대에서 한국언어학학술대회를 한번 열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즉시 동의하고 함께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당시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Edward Wagner 교수를 만나 의논하였습니다. Wagner 교수 주선으로 한국학연구소에서 거금 1,000달러를 지원하여 주어서 일은 급진전하였습니다. 우리는 Edward Wagner, Susumu Kuno, John Whitman, 강영세 교수와 저, 이렇게 5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5 Harvard Workshop on Korean Linguistics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12일과 13일 이를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하버드에서 발행되는 *Harvard Gazette*(1985.7.12.)에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학술대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인영: 그렇게 시작된 학술대회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얻으셨겠지요?

이익환: 학술대회 결과는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외국의 발전된 문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합일하여 이룬 것을 외국에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술대회를 제안했던 것이 잘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인영: 그 이후 하버드한국언어학 국제심포지엄의 조직과 진행에 별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이익환: 처음 모임이 비교적 괜찮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2년마다 한 번씩 열자는 의견에 동의했지요. 저는 귀국했으니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학술대회 조직과 진행은 Susumu Kuno(Harvard), Joan Maling(Brandeis; 전 미국언어학회 회장), John Whitman(Cornell) 교수 등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 번 방문학자로 초청해 준 하버드옌칭연구소가 행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기간에 Harvard, Amherst, MIT 등에서 유학하던 강영세, 강명윤, 최현숙, 최재웅, 김영주, 김수연, 장영준, 이숙, 이주은 등 여러 선생님이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까지 28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후 사정상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함께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인영: 교수님께서는 2008년 서울에서 열린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CIL-18)의 조직위원장으로서 학회를 훌륭하게 치러내시어, 한국언어학회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우선,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환: 이 학술대회는 CIL(Congrès International des Linguistes), 이것을 세계언어학자대회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혹은 국제언어학자대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1회 세계언어학자대회는 1928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 대회를 주관하고 진행한 조직이 국제언어학자회의(CIPL)입니다. 그 후 CIPL은 5년마다 다섯 대회를 돌며 이 언어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아시아 대회에서는 1982년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26년 후인 2008년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언어학자대회의 규모는 참가자의 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서울 대회에서도 96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은 1천 명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지인영: 이러한 큰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진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익환: 2003년 제가 한국언어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CIPL 회장인 헝가리의 Ferenc Kiefer 교수가 서울에 오셨어요. 저에게 2008년 제18차 CIL을 서울에서 개최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몇 나라가 신청하게 되며 그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언어학회 임원과 전임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후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지요. 그해에 한국언어학회는 제가 존경하는 홍재성(서울대) 교수와 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준비위원회를 꾸려주었어요. 준비위원회는 CIL-18의 개최 의사를 밝히고, CIPL에 제출할 개최계획서(proposal)를 마련하는 일을 맡았지요. 대회 지원을 약정받는 일과 장소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 특히 “5년 후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일은 참 어려웠어요. 다행히 홍재성 교수와 함께 많이 노력하여 여러 관련기관의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특히 홍재성 교수께서 노고가 많으셨지요. 고려대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3년 개최계획서를 CIPL에 제출하여, 2004년 CIPL로부터 서울 개최 결정을 통보받았어요. 기쁘긴 한데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지인영: 그 후 학술대회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익환: 2005년에는 준비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개칭되어 역시 홍재성 교수와 제가 공동위원장은 맡게 되었습니다. 2008년까지 여러 가지 준비했고, 또 한국의 학자로는 이기용(고려대) 명예교수가 총회 발표자(plenary speaker)로 초청되어 형식의미론을 주제로 훌륭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일이 잘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신 한국언어학회 초대 회장 장석진(서울대) 교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과별로 조직하는데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현 한국언어학회 회장 이민행 교수와 오늘 이 대담을 진행해 주시는 지인영 교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와주셨지요. 여러 소위원회 및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분들로, 강영세(국민대), 이희경(고려대), 장영준(중앙대), 이성현(서울대), 윤종열(국민대), 김기호(고려대), 이병춘(인하대), 한재영(한신대), 박만규(아주대), 문승철(항공대), 정민화(서울대), 남승호(서울대) 교수 등이 조직과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지인영: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학술대회의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기대하셨던 성과를 얻으셨겠지요?

이익환: 조금 전 참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구석구석의 언어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는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David Crystal은 2010년에 발행된 책 *The Encyclopedia of Languages*(Cambridge U Press)에 서울 대회의 개회식 사진 한 장을 “The 1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in Seoul in 2008”이라는 표제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학술대회의 개최가 우리 한국의 언어학 내지는 한국언어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주최국의 언어를 논문 발표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우리 한국어로 발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많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가 이 학술대회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상억(서울대) 교수가 조직한 훈민정음 관련 문자 워크숍은 우리의 것 ‘훈민정음’을 세계 언어학자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결과를 우리는 CD 한 장에 모아 ‘Current Issues in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s’로 제작하여 2009년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CD가 잘 이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USB로 바꾸어 쓴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한국언어학회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CIL-18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언어학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영어학회, 독어학회, 프랑스어학회 등 여러 학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국언어학 내지는 한국언어학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많은 학자들이 와서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학자들이 현대언어학 발전을 위해 한국언어학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영: 2008년 CIL-18 이후에도 교수님께서는 한국언어학회를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지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익환: 서울에서 개최된 CIL-18 이후 2008년부터 한국언어학회는,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 국제언어학자회의, 즉 CIPL의 집행위원회 위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언어학회는 미력한 저를 대표로 선정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2013년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유임이 되었어요. 그런데 2014년 CIPL 회장의 유고로 부회장이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부회장은 투표로 선정하였는데, 제가 그 부회장을 맡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난 2018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CIPL 총회에서

다시 부회장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이익환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한국언어학회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져서 우리 한국언어학회에게 부회장직을 배당해 준 거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2023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인 CLL-21을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현재 카잔의 사정이 좋지 않아 거기를 접고 다른 곳을 접촉 중입니다. 카잔이 결정될 때 밀렸던 곳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영: 교수님께서는 2008년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상명대학교 석좌교수로서 강의도 계속하시면서, 또한 한국언어학회를 위한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었는지요?

이익환: 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상명대학교에 석좌교수로 초빙되어 강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력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상명대학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언어학회의 직간접 도움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2010년에 열린 SICOL-2010에 초청받아 “Resultatives in Event Semantics”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3년에 『영어결과문의 사건의 미론적 분석 및 응용』이라는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학술원의 ‘2014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영어학협회(The World English Linguistics Association: WELA)가 결성되어 미력한 제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해 세계영어학자대회(World Congress of Scholars of English Linguistics: WCSEL)가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논문들을 모아 *Issues in English Linguistics*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영어학회 김영석(서강대) 창립 초대 회장과 김임득(한양대), 안동환(부산대), 김경애(한경대), 김진형(과학기술대) 전임회장을 포함하여 한국영어학회 및 한국언어학회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학교생활이나 학회 활동하는데, 항상 주위에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언어학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저와 함께 활동해 주신 훌륭한 학자들의 도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담을 주재해 주신 한국체육대학교 지인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지인영: 네 교수님,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저도 일찍이 이익환 교수님과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정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한국언어학과

한국언어학회를 위해,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 많은 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획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익환: 2000년대에 들어와 훌륭한 후배 언어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앞으로 우리 한국언어학회의 발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의 보물 『훈민정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한국철학이 그 창제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학의 전공 분야는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언어학회라는 종합적 단체를 튼튼히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들께서 자기 세부 전공 분야 모임은 물론 한국언어학회 전체 모임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양한 세부 전공 혹은 지역 학회들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언어학회(Linguistic Society of America)는 건실하게 큰 우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언어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언어학회 모든 회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영: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 계신 일에 큰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익환 교수님과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홍재성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이성현 교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lsh0717@snu.ac.kr

홍재성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1968년 문학사 학위를, 1970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 이어 1982년 프랑스 파리 제7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35년간 불어학과 인지과학을 가르치셨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11~현재)이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2007~현재) 이시다. 그 외에도 한국언어학회 회장(2006~2008)을 역임하셨고, 2008년에는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CIL18) 공동조직위원장(공동위원장: 이익환)을 맡아 2000여 명이 참가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 활발한 학술 활동과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프랑스 학술공로상(1995)과 제22회 외솔상(2000)을 수상하셨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사론, 어휘의미론 및 사전학이다.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원로 교수님과의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언어학회 제16대(2006~2008)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홍재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언어학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여쭙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홍재성: 우선 한국언어학회 초창기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에 그저 학회 일원으로 활동해 온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950년대 말 60년대 초는 한국 문학계에서 유럽 쪽의 실존주의 철학, 또 같은 흐름을 갖는 실존주의 문학이 상당히 많이 소개된 터라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제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물론이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을 때까지도 문학 공부를 하겠다고 잘못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학부 시절부터 전통적인 프랑스어 기술 문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법 공부를 좀 한 셈이었고 문학 공부를 하면서도 언어 표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른바 문체론 쪽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문체 분석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언어학으로 관심이 옮겨간 것이지요.

이성현: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한국언어학회 창립에 참여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계기로 한국언어학회 창립에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소장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국내 언어학계의 사정은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재성: 한국언어학회가 창설된 것은 1975년 가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하게 된 시기였는데, 제가 학부 때나 대학원 시절부터 불어불문학계에서 당시로서는 불어학 연구의 거의 유일한 학자로 볼 수 있는 박옥줄 선생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기술 문법 쪽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아시고 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옥줄 선생님과 만나면 불문법 문제로 제가 질문도 많이 드렸지요. 그때 박옥줄 선생님께서 같은 연배이신 장석진 선생님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장석진 선생님을 알게 됐죠. 장석진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한국언어학회에 창립 당시부터 저를 참여하게 하시고 간사와 같은 임원으로 활동도 하게 해 주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언어학회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어학 관련 학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돌아보면 구조주의 언어학이 대세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국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주로 구조주의 언어학 방법론이나 이론에 입각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방한 선생님 같은 분이 유럽의 구조주의를 소개하는 글도 많이 쓰셨죠. 또 한편으로는 역사 비교 문법에 대한 연구나 소개도 많이 하셨어요. 또한, 허웅 선생님 같은 분이 완전히 구조주의 언어학에 입각한 일반언어학 개론서도 쓰시고 한국어 연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구조주의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초창기부터 어휘 연구나 의미 연구에 구조주의적인 시각을 적용한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어휘론이라든지, John Lyons 같은 학자가 주창한 구조의미론과 같은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Noam Chomsky가 1957년에 <Syntactic Structures>를 발간하고, 그 다음 1969년에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가 발간되면서 한국 학자들도 변형생성문법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도 하던 시기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떤 문법 이론인지 어떤 언어 이론인지 보니 특히 수리 논리적인 바탕에 입각한 형식주의적인 언어학이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생성문법 연구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연구는 문체론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석사 논문 계획을 낼 때 현대 프랑스 작가의 작품 중 제가 좋아하던 작품에 대한 문체 분석을 석사 논문 계획서로 제출한 기억도 납니다.

이성현: 한국언어학회 창립 후 선생님께서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프랑스 파리 제7대학에서 유학을 하셨고, 귀국 후에 다시 학회 활동에 합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미 언어학계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언어학회의 국제 교류의 범위를 유럽 등 다양한 언어권으로 넓히는 데에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학업과 연구, 그리고 교육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유학 중에 파리 제7대학 동양학부 한국어학과에서 3년간 전임강사로 한국어 강의를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쓰셨지요? 이 시절 교류하셨던 학자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1992년 SICOL(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에 Igor Mel'čuk과 Oswald Ducrot, Ferenc Kiefer 등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을 초청하게 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성: SICOL, 즉 한국언어학회가 주최하는 국제 언어학 학술대회는 1981년 아마도 양인석 회장님 때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세계 언어학계에 많이 알려진 유수한 미국 언어학자들이 대거 한국에 초청되어 발표도 하시고 한국 언어학자들과 교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파리 유학 시절이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많이 구해보았던 Maurice Gross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Maurice Gross 교수는 Zellig Harris 교수의 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Noam Chomsky 교수와 같은 시기에 Harris 교수의 강의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aurice Gross 교수는 원래 수리 언어학, 전산 언어학에서 출발하신 분이거든요. 이과 계통의 공부를 하신 분이죠. 이분은 세계 유수의 다양한 언어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 Maurice Gross 교수를 통해서

Igor Mel'čuk, Ferenc Kiefer와 같은 학자들을 직접 소개도 받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Gaston Gross 교수라고 Maurice Gross 교수와 같은 성을 가진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을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만나게 되어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Gaston Gross 교수 역시 유럽의 여러 언어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 학자나 이후에 유럽 언어학자들을 Gaston Gross 교수를 통해 많이 소개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3년 귀국한 이후 1986년에 김석득 교수가 한국언어학회 회장이실 때 제2회 SICOL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Maurice Gross 교수가 초청되어 SICOL에서 강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기선 교수와 같은 전산언어학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Maurice Gross 교수는 Eric Laporte라는 젊은 전산언어학자와 동행했는데, 이러한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국 전산언어학계를 접하게 돼서 호감을 많이 갖고 돌아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92년 이기용 선생님이 회장을 하실 때 저는 한국언어학회 임원으로 선생님을 도와서 제3회 SICOL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 언어학계의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유럽 언어학계의 연구 동향도 한국 학계에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기용 선생님이나 그때 같이 SICOL을 조직하는 데 참여했던 동료 학자와 회원 선생님들도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죠. 코퍼스 언어학의 거의 초창기에 활동한 영국의 John Sinclair 교수를 초청하였고,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동구권 언어학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쪽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됐을 시기였기 때문에 Juri Apresjan 같은 러시아 언어학자라든지, 러시아에서 아주하여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Igor Mel'čuk 교수라든지. 혹은 동독 출신의 언어학자인데 통독이 되어서 왕래가 가능했던 Manfred Bierwisch 교수 등과 같은 학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용론의 경우 상당히 많이 소개된 영미 중심의 화용론과 달리 상당히 독특한 프랑스 화용론을 개척한 Oswald Ducrot 교수 같은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때는 영국 문화원이라든지,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과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해서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마침 1991년에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한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펼쳐서 가장 먼저 형가리와 국교를 맺게 됩니다. 그때 형가리에 마침 전산사전학 학술회의가 개최됐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Juri Apresjan, Igor Mel'čuk, Ferenc Kiefer, 특히 이분은 형가리의 전산사전학 학회 주축이었는데,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다음 해 개최되는 SICOL 참여를 확약받고 Ducrot 교수와도 연락이 잘 되어서 1992년 SICOL 때에는

다양한 유럽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홍배 선생님이 회장이실 때 그때도 제가 임원으로 학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François Rastier라는 프랑스 의미론 학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학자들을 한국 학회에 초대하는데 제가 좀 거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1992년 SICOL 때에는 제가 대학원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SICOL에 참여해서 특히 Mel'čuk 교수나 Ducrot 교수, Kiefer 교수 등 쟁쟁한 유럽의 언어학자들을 만나고 강연을 들었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다음에 학술 교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때의 경험이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 언어학계가 사전과 사전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의 <연세한국어사전>으로 대표되는 종이사전의 발간은 물론 <21세기 세종계획 한국어 전자사전>이 구축되는 등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선생님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지요?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을 시작으로 <두산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한국불어불문학회 편 한불사전> 등 종이사전 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세종 한국어 전자사전> 개발 사업에도 연구책임자로서 10년에 걸친 방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언어학계의 역량이 집결된 한국사전학회 창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사전 및 사전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와 한국사전학회의 창립 배경 그리고 의의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홍재성: 제가 사전학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에 관심을 가졌던 초창기에 특히 구조어휘론, 즉 어휘 결합 관계에 대한 연구와 구조의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1974년에 선배 선생님들하고 같이 <불어학 개론>이라는 교과서적인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오래된 편이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판을 해버렸으면 아마 자연스럽게 절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두세 챕터를 제가 맡아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체론에 대한 관심의 연장으로 불어 작시법(Versification)에 대한 챕터를 썼고, 또 한편으로는 어휘 관계에 대한 챕터를 하나 썼습니다. 프랑스 쪽에 아주 발전된 어휘 연구를 섭렵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Maurice Gross 교수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Maurice Gross 교수는 어휘부와 문법부를 통합시키면서도 단문 구조 내에서 어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속성을 어휘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주 정밀하게 형식화해서 기술하는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의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Maurice Gross 교수의 연구 성과는 전자사전(computational lexicon) 형식으로 표상이 되고, 이러한 집적된 어휘 자료는 여러 가지 자연 언어 처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연구 자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이사전에도 함께 관심을 갖게 되었죠. 종이사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자사전에 대한 관심도 병행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Jean Dubois라든지, Josette Rey-Debove라든지, 프랑스 학계에서 현대적인 불어 사전학의 이론적, 방법론적 초석을 세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접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동시에 제가 학위 과정에서 불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동사도 함께 연구했기 때문에 한국어 사전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더구나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사전학은 벌써 80년대 후반에 완전히 자리가 잡혀서 백과사전이 나오고 유수의 이론적인 사전학 논저가 나올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말 연세대에 재직하고 있을 때 이상섭 선생님이나 남기심 선생님 같은 분들, 특히 이상섭 선생님이 아주 이전부터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애착을 갖고 사전의 가치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새로운 면모의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1987년으로 기억하는데, 마침 연세대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다른 선생님들의 지지도 받아서 새로운 면모의 한국어 사전, 특히 John Sinclair 교수의 사전 편찬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아 코퍼스 기반으로 공시적인 기술을 하는 사전을 편찬하는 구상을 하고, 실제로 언어정보원 같은 것도 만들고, 사전 편찬학 연구라고 하는 논문집도 만들기로 하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글도 발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남을 텍스트는 아니지만, 방송통신대학의 김현권 선생님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김현권 선생님하고 <불어학 개론> 교과서를 집필할 때 사전학을 한 챕터로 넣어서 프랑스 사전학도 소개하고, 이론적인 방법론도 소개하고, 실제로 사전 텍스트를 분석한 사례도 보여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언어학회에서도 매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하는데 특강 주제를 일반 사전학으로 잡아서 특강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학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과 새로운 사전을 편찬하고 싶은 지향이 모아져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이성현 선생님의 말씀대로, 한국 사전사를 되돌아보고 평가를 해본다면 정말 한국 사전 편찬사의 도약기나 황금기라고 특징지을 수 있고 그 바탕이 되는 훌륭한 의미 있는 사전들이 많이 편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탕으로 한국사전학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성현: 그때 창립총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창립총회

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즐겁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사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홍재성: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국어학계에서는 이병근 선생님이 사전사를 정리하고 싶어 하시고 사전 편찬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하나로 합류하여 한국사전학회도 창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경에서 한국 사전학 분야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전에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사전학의 획기적인 성과로 부를만한 일들이 90년대 말에 있었습니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연세한국어사전>의 발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갖고 계시고 그 의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전들의 발간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성: 제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가 아마도 한국 사전 편찬사의 황금기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성현 선생님이 거론한 사전 이외에도 1992년 한글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을 발간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표준국어대사전>은 1997년에, 그 다음은 고려대에서 <한국어대사전>을 2007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전자사전>도 2007년에 완료가 되고, 그 중간에 <연세한국어사전>이 발간이 되었죠. <표준국어대사전>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익섭 선생님이 국립국어원의 원장을 하실 때에 편찬 관련 자문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전문위원과 비슷한 자격으로 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좋은 사전이 되도록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연세한국어사전>은 구상하고 발간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제가 학교를 서울대로 옮겼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 했지만, 1964년 프랑스에서 Jean Dubois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발간된 현대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즉 DFC라고 하는 사전과 비교될 수 있는 의미있는 새로운 사전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퍼스 기반이고, 표제어를 제한한 선별형 사전이고, 공시적인 기술 위주니까요. 그런데, 사전사, 편찬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DFC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지만 상당히 참신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대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은 전산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수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프랑스의 <Petit Robert>나 <Petit Larousse>와 같은 중규모 사전이면서 백과사전과 언어사전을 혼합하지 않은 사전으로서, 한국 국어학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휘 연구나 통시적인 연구, 사전 연구의 성과를 집적한 새로운 중규모 순수 언어사전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사전의 전통은 대규모 백과사전-언어사전 혼합 형이 대세이고, 사전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이러한 사전을 좋은 사전으로 보는 조금은 편향된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는 중규모 순수 한국어 사전, 그간의 한국어 중심의 연구 성과를 집적해서 표상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 정보보완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수정과 보완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도 느낀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사전이 특히 전산적인 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확장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때문에 백과사전과 일반사전의 구별 문제는 관심이 점점 덜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규모와 수준의 사전이 발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연구책임자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던 <세종전자사전>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텐데요. 지금 구축 완료가 된 시점으로 보면 15년이고, 사업 개시가 된 시점으로는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사업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한번 되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성: <세종전자사전>은 세종계획, 즉 정부에서 주도한 한국어 전산화 작업의 일환인데 시작은 1997년이지만 준비 작업이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이양기였는데, 그때 정부에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처리와 관련해 강한 정책적인 지향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굉장히 발전한 전산 처리 시스템의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였죠 세종계획도 바로 그 시기에 정부에서 장기 계획으로 지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인문학 쪽에 이런 10년 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사례가 그 시기에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휘부 중심 언어학 이론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전산화, 전산 처리에도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마침 제가 책임을 맡게 되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마침 그때 참여하시던 국어학계나 언어학계나 불어학 연구하는 분들이나, 특히 전산학계 이종혁 선생님 같은 분들도 합심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세종전자사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의의를 분석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안 나지만, 제가 하나 꼭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세종 전자사전이 반드시 새로운 정보처리 기술 환경에 맞게 변환이 되거나 보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종계획은 당시에 10년 계획이었지만 거의 완성을 못 보고 정부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하면 미완성으로 끝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든지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이 빅데이터 중심이라든지 딥러닝, 기계 학습 중심으로 가면서 언어 지식 기반의 처리가 사양길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보처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이른바 콘텐츠하고 괴리가 생긴 현 상황에서, 종이사전의 콘텐츠라든지 <세종전자사전>의 콘텐츠들은 인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문화사적인 또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부에 대한 이러한 깊은 연구나 콘텐츠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계획이 다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어두워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성현: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우리가 또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10년 계획이 끝날 즈음에 한국언어학회에서는 아주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2008년 제18회 세계언어학자대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했었죠. 그때 선생님께서는 한국언어학회 회장으로 이익환 교수님과 공동조직위원장은 맡아 대외 유치에서부터 준비, 개최 마무리 그리고 후속 작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대회 개최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성: 네, 세계언어학자대회는 1920년대 유럽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적인 언어학 학술대회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도 공식적으로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해당 대회는 5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에 개최가 됐지만 2002년, 2003년부터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 가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던 데에는 당시에 한국언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공동조직위원장은 맡으신 이익환 선생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익환 선생님은 아까 언급되었던 Ferenc Kiefer 교수와 이전부터 이정민 선생님과 함께 학술적인 교류가 있었던 분이시고, 저는 Ferenc Kiefer 교수를 다른 경로로 또 아주 개인적으로도 알게 된 경우이죠. 그리고 이성현 선생님을 비롯해 그때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이 대회 준비를 하시고, 또 해외에서 개최 진행에 참여하시는 등 한국언어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비롯해 세계언어학자대회의 개최에

도움을 주신 기관들은 국립국어원도 있고 서울시도 있지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이런 협력과 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익환 선생님을 비롯해 이성현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분들 생각을 하면 제가 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세계언어학자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 이어 우리가 두 번째로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언어학자대회를 관장한 기관에 계신 임원 분들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언어학자대회는 역사상 아주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환 선생님도 언급하셨지만, David Crystal이라고 하는 영국 언어학자가 편찬한 언어학 백과사전에 제18차 서울 세계언어학자대회 개막식 사진이 게재될 정도로 정말 성공적인 대회였지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그때 참가한 외국 학자가 아마 1,000명이 넘었을 것이고, 국내 학자를 포함하면 1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특히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아시아권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도 했고 독려도 했고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세계 언어학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하고 있는 상당히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Stephen Anderson, Christian Lehmann, Laurence Horn, Brian Joseph 같은 분들이 있고, 몇 분 더 들어본다면 Johan van der Auwera, Guglielmo Cinque, Giuseppe Longobardi, 그 이외에도 정말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학계와의 아주 긴밀한 교류가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프로시딩즈에 기록되어 있는 발표 논문들이 이후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얼마만큼 영향을 준 지가 불분명한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언어학계를 세계 언어학계에 알리는 데에는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고 한국언어학회로서는 꼭 기억해야 할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직위원회에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제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선생님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성현: 저도 그때 준비할 때 기억이 납니다. 준비에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애쓰셨지만 특히 여기 계신 홍재성 선생님과 선생님이 언급하신 이익환 선생님의 노고가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거의 매주 한 번씩 교육과학 기술부가 있던 정부종합청사 뒤쪽 카페에 모여서 면담 신청하고 기다리고 논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개인 활동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임 후에도 여전히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형론 연구회를 시작하셔서 이를 유형론 학회로 키우시는 등 공부 모임, 그리고 학술대회에

꾸준히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형론 연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한국 언어학계는 어떻게 유형론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휘부 중심 언어 연구와 언어 이론이 저의 핵심적인 관심 분야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에 재직하시던 인지심리학을 전공하신 조명한 선생님이나 언어학과에 계셨던 이정민 선생님처럼 원래부터 인지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의 권유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인지과학 관련 강의 개설, 인지과학 협동과정 설치, 인지과학 연구소 설치에 동참해서 노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지과학 관련 강의가 개설되고 인지과학 협동과정이 개설되면서 강의를 일부 맡아서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 중의 하나인 언어능력에 대한 부분은 인지과학의 테두리에서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동물 인지행동학이나 진화생물학이나 유전체학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 언어의 기원이나 진화나, 인간 언어능력이 동물의 의사소통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혹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faculty)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해결되지도 않을 그런 거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언어는 상당히 다양하죠. 전 지구적으로 7000개 정도의 언어를 구별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와 같은 특징을 지닌 현대적인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진화생물학이나 진화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1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언어로서의 어떤 보편성, 공통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인간 언어의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다양성 속에서 언어 보편성 연구도 하면서 다양성의 양상이 어떤지에 대한 아주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언어 유형론 연구에 제가 합류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 학계에서 이런 식의 연구가 발전됐으면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사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언어사용 상한선 시기가 6000년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년, 15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한 언어학적인 관점과 방법에서 이론만 가지고는 이를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고고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진화생물학이라든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전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공학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하고, 당연히 진화생물학을 포함한 유전체학 등이 포함되어야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언어능력이 어떻게 변화를 겪어서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의사소통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한 영역이 바로 언어 유형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현: 요즘 활동을 하시는 유형론 학회의 구성을 보면, 시작할 때 소장 연구자였던 분들이 이미 중견이 되었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계속 활동을 해 주시니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언어학 입문은 사실 프랑스 언어학에서 시작됐었죠. 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프랑스 학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꾸준히 프랑스어권 언어학 연구 성과를 국내에 소개도 하시고, 또 국내 연구를 프랑스어권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알리시는 데 애를 쓰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어 분야, 흔히 제2외국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는 영어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만, 외국어 분야의 언어학 연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언어학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성: 우선 이성현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길 해도 끝이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연구가 영어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교육 중심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꿔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의 한 측면, 아주 본질적인 그런 측면의 하나로서의 언어현상, 언어능력을 학술적인, 과학적인 탐구 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언어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고 발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양성 관점에 보면 주로 한국학계가 영미 언어 중심이나 유럽어 중심으로 편향이 되어있죠. 물론 여기에 아시아 지역 언어를 연구하는 분들, 아랍어를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분야도 발전되고 확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로서는 아프리카 언어나 파푸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언어 혹은 남북미의 원주민 언어 등등으로도 확장해서 시야를 넓힌 연구가 인간 이해의 한 경로로서의 언어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언어에 대한 연구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는 지금 유형론 학회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국 언어학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질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언어학자들의 소망입니다. 저도 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지만, 저는 한국 학자가 자기 이름을 건 가설이나 언어 표상 모형이나 언어 이론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촐스키, 소쉬르, 야콥슨을 이야기하지만요. 그런데 그런 세계 학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가 될 수 있는 한국 학자가 우리 후학들 중에서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고요.

둘째는 언어학 분과 간의 소통입니다. 언어학과 인접 과학 간의 학제적인 소통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학계를 보면, 제 잘못된 편향된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소통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론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의미론이나 형태론이나 통사론이나 화용론과 같은 언어학의 분과 영역 간에도 소통이 부족해 보입니다. 요즘 접면(Interface)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접면 부분이 오히려 본령보다 아주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한 언어현상은 본래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측면들이 얹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가 저로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어심리학이라든지, 언어사회학이라든지, 언어인류학이라든지, 신경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 학계에도 소개가 되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이 인지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지과학 테두리 안에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학계에 조금 미진한 것이 바로 진화생물학 쪽과의 협업이거든요. 서양에서는 진화언어학이 교과서로 출간이 될 만큼 이 분야의 연구가 과학적인 연구 주제로서의 언어 기원과 진화를 다루고 정기적인 국제 학회, 학술회의 도 있고 총서도 많이 출간되는데, 이런 쪽의 연구도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제 간 연구라는 것은 단순히 공통의 주제나 관심을 가지고 학제 간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각 분야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분류의 문제 또는 방법론의 문제 또는 개념이나 이론상의 공통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요. 동북아시아 지역 언어하고 한국어 사이의 관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같은 관점에서 한국어의 계통론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맥이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서양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일본이나 중국의 학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국 학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간혹 자연과학 쪽에서 출발하여 집단유전학(population genetics)과 선사 언어(prehistoric language), 고대 인류 이동(ancient human migration)과 같은 주제로 연구하는 아주 특별한 개별적인 학자가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통론, 지역 유형론, 지역 언어학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 지역 언어와 한국어를 연구하는 알타이어 계통론이라든지, 트랜스유라시아 어족(Transeurasian languages) 등 이런 것을 넘어서는 연구를 한국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으로 보면, 한국학 중앙연구원 같은 곳이 중심이 되어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제 피상적인 인상으로는 언어 문제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 고고학, 인류학 이런 쪽은 당연히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언어 연구는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의 주도권을 모두 외국 학자에게 뺏기고 한국 학자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학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해결해 나가고 진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언어학회가 중심이 되어 이런 넓은 시야와 문제의식을 갖고 학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참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성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한국 언어학계의 반세기를 되짚어 보고, 다가올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연구 활동 계속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성: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이정민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남승호 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nam@snu.ac.kr

이정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1963년 문학사 학위를, 1968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다. 이어 1973년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이 교수님은 또한 197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가르치셨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05~)이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2014~)이시다. 그 외에도 형식문법학회(언어정보학회 전신) 대표(1988~1992), 한국인지과학회 회장(1994~1996), 한국심리언어학회 회장(2001~2003) 등을 역임하셨다. 2023년에는 미국언어학회 명예회원으로 선임되셨다. 주요 연구 분야는 통사론, 의미론 및 화용론이다. 주요 저서로는 『의미-통사 구조와 인지』(2020, 한국문화사) 및 『영한 화용론-의미론』(2022, 대한민국학술원총서)이 있고, 해외저술 등은 web에서 볼 수 있다[Web: <https://chungminlee.wordpress.com/>(Wordpress); <http://clee.snu.ac.kr>(SNU); <https://scholar.google.com/citations?user=RV1i9qMAA AJ&hl=ko&oi=ao>(Google Scholar(pdf))].

남승호: 오늘 대담은 한국언어학회가 기획한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 탁월하고 훌륭한 연구 업적을 쌓으신 선배 언어학자들을 모시고 대담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첫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옛날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언어학에 처음 뜻을 두시고 언어학에 발을 들이시게 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젊으실 때에는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많은 분들한테 생소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이정민: 네, 이런 귀한 기회를 학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어학이라는 분야를 듣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이기문 교수가 당시 경기고등학교 강사로 국어 문법 강의를 하시면서 ‘학문의 길, 업적 평가는 관 뚜껑을 닫은 뒤에라야 된다.’ 또, ‘국어학자라면 먼저 언어학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비로소 언어학하고 은연중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승호: 네,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 이 분야를 잘 모르고 대학교에 들어왔다가 1학년 때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언어학 개론 수업을 듣고 언어학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과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이제 생각하면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대학교에 들어오셔서 학부를 보내시고 또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계속 연구하셨을 텐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정민: 네, 사실 학부 때에는 제가 영문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문학도 좀 한다고 하고 번역도 하였습니다. 당시 하길종(영화 감독이 되어 ‘바보들의 행진’ 등으로 히트)이라는 불문과 친구와 문학 서클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2학년 때부터는 언어학에 조금씩 더 다가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기문 선생님의 알타이어학이나 음운론, 그리고 허옹 선생님의 음운론과 같은 강의들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학 공부를 겸하면서요.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에서 <Ulysses> 강의를 영국 학자에게 배웠는데 참 어렵게 배웠습니다. 2022년 여름에 저자 James Joyce의 아내 Nora의 옛집이 있는 아일랜드의 Galway에서 열린 ESSLLI의 Semantics of Imagination Workshop에 초청돼 발표하면서 Nora의 집도 구경하고 더블린에서 Joyce의 친필 원고 사진을 보며 고쳐가며 고심한 자취를 보았지요. 그밖에도 피천득 선생님의 Yeats 강의, Shakespeare 소네트 강의 등을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내가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압박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문과에 언어학 과목으로는 조성식 선생님의 고대 영어가 유일했는데 그나마 강의가 한두번 밖에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유학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남승호: 당시 언어학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당시 언어학계를 간단히 회고하신다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지요? 국내외에서 경험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민: 네,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 그 무렵에 벌써 이화여대의 이혜숙 선생님, 이승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초기 생성문법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당시 제가 유학을 가면서 범한 서적이라는 외서 전문 서점에서 Chomsky의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를 한 권 사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Indiana 대학교로 유학을 간 것인데, 첫 1년을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용 언어학을 하느라 36학점을 따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자유롭게 이론 언어학 쪽으로 전환해서 첫 가을 학기에 통사론 수강 자격시험에 통과한 29명 중에 학기 성적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학기 TA 제의를 받고 체류 기반이 마련되었죠. 같은 반에 MIT로 옮겨 가 weak/strong Det 구별로 날린 Milsark 같은 친구도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보면 모두가 Chomsky 덕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당시 60년대 후반 학과에서 인사로 “Chomsky가 오늘은 뭐라고 말했지”라고 물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승호: 당시 한국 9시 뉴스가 시작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처럼요.

이정민: 당시 Chomsky 유파는 그에 반기를 든 생성의미론,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관련된 학파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생성의미론적인 경향이 상당히 호소력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남승호: 교수님께서 유학하시면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시고, 이후로도 훌륭한 논문들을 내셨는데요. 당시 해외에서 발표하신 것, 그리고 저널에 게재하신 논문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민: 네, 당시 활발히 발표하는 행운이 따라서 1972년에 경계 현상(boundary phenomena)이나, 이건 원래 김진우 교수께서 시작한 건데, 그 현상을 다시 살펴본다는 형식으로 논문을 만들어서 *Papers in Linguistics* 저널에 실려 통지서를 지도 교수 Householder가 보고 대단히 기뻐하며 악수를 해줘서 아주 놀랐습니다.

남승호: 지도 교수가 그렇게 칭찬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죠.

이정민: 당시 한자어가 이음절화되는 경우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일종의 심리 어휘부(mental lexicon) 제약, 예를 들어 ‘구토를 했다’는 되는데 ‘토를 했다’는 안 되는 그런 제약을 언급하였는데, 그 부분이 경계 현상에서 어떠한 제약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금도 해외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음운 규칙들을 최초로 자질로 형식화했다고들 말합니다. Shane의 생성음운론 교재 연습

문제로 쓰이기도 했지요.

남승호: 그리고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또 논문과 관련된 여러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네, *Foundations of Language*, 이제는 *Linguistics and Philosophy*로 전환됐지요. 그때 저널에는 Lyons 같은 대표적인 영국의 의미론 학자 이런 분들이 기고를 하고, 철학 분야의 학자들도 기고하던 중요한 저널인데요. 거기 1973년 3월 호에 우리말 내지 영어의 상태 변화 동사에서 대상 역할의 존재 문제에 대한 논문이 게재된 것이지요. 변화는 존재가 전제되나 창조/없애기의 완성동사의 경우는 telic culmination 때 존재/비존재가 합의돼야 하나 행위 사건이 중단될 수 있어 이른바 ‘미완성 역설’이 대두되지요. 논의의 바탕이 되는 BECOME (NOT) EXISTENT의 기본을 세웠고, 우리 말의 ‘없애다’는 기초적이고도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73년 봄에 Texas 대학교에서 <Perfomadillo Conference>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Armadillo와 performative를 합성한-학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화용론의 거장인 Grice와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Stalnaker 등의 발표를 듣고, Lakoff의 논문이 당시 풀지 못한 숙제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Indiana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Texas에서 이기용 교수를 만나 내가 연구하고 있는 생성문법을 피해서 자기는 몬태규 문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Indiana에 가서 Lakoff의 숙제에 잠시 매달려서 밤에 전화 교환수들에게 물어 영어 직관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1973년 Ann Arbor에서 열린 LSA Linguistic Institute에 가서 발표하고, 잊을 뻔했다가 회의에서 제일 좋은 발표였다는 미국 학자의 한마디가 귀국 후에도 생각이 나서 해당 원고를 *Language*에 보냈고 그것이 1975년 3월 호에 “Embedded Performatives”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그것이 Karttunen의 실라버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Karttunen이 Texas 대학교에서 대학원 통사론 강의를 하고 있었지요.

남승호: 네, 저도 “Embedded Performatives”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후에도 한국 학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논문이기도 하지요. 선생님께서 당시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학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며 연구하셨던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널을 편집하시는 일들도 일찍부터 많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민: 저널 쪽 관심은 한국에도 초청돼 와서 강연했던, 지금은 하버드에 있는 대만 출신 학자인 James Huang이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일본 출신으로서 MIT에서 학위 한 Inoue하고 한국의 제가 같이 편집자로

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양인석 교수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정열적으로 축하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Linguistics and Philosophy*에 우연히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에 초청됐었는데, 그건 Barbara Partee, Greg Carlson, Manfred Krifka 같은 학자들이 좋게 봐준 것이지요.

이후에 *Lingua*, *Journal of Pragmatics* 등의 편집위원회에, 또 *Pragmatics*의 에디터, 또 이후에 *Lingua*에 반란을 일으켜 따로 나와 창립된 *Glossa* 등의 저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석진 선생님의 위촉으로 <어학연구>(Language Research)-이 저널은 사실 <언어>보다도 훨씬 먼저 생겼던 저널인데요-에서 10년간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2000년에 *Journal of Cognitive Science*를 창간해 Scopus 저널로 승격시키고 23년째 지금까지 총괄편집장(Editor in Chief)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늘 안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10여 년째 Springer사의 출판 LCAM(*Language, Cognition, and Mind*)을 단독 편집인으로서 10여 권째 내고 있고, 그중에 Stanford대 교수가 교재로 쓰겠다고 한 책도 있지요.

남승호: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이런 국제적인 저널의 총괄편집장을 계속 맡으시며 간행하고 계신 것이 대단히 큰 수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Journal of Cognitive Science*가 발간되기 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일부 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ICCS>를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과 일본에서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학회로 시작된 학술지가 생겨나고, 또 현재에도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적인 학자들이 논문을 내면서 많이 인용되는 논문집으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정민: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동료 학자들을 들볶는 일입니다.

남승호: 이제 교수님 연구 분야와 주제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 언어학자들 가운데 교수님처럼 다양한 연구 주제와 분야를 다루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인데요. 교수님 연구를 모두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간단히 주요한 것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민: 네, 제 제자이기도 한 Illinois 대학교의 윤혜석 교수가 말하기를 “이정민 교수는 형태론 뿐고 언어학의 모든 분야에 논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형태론으로는 논문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 심리 어휘부 및 어휘분해에

의 관심 때문에 형태론도 잘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전제, 화제, 초점의 정보 구조에 관심이 있는데요. 전제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고, 화제, 초점의 정보 구조는 우리말의 특징, 즉 화제 표지(topic marker)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조 화제(contrastive topic)를 상례적(고정적) 척도 함축으로 보는 이론으로 주장을 해나가고 있으나 서양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D-tree 논문으로 유명해진 Buring도 실은 제 영향으로 통합적인 대조 화제 개념을 받아 갖고 제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우연히도 이 대조 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억양(intonation)과 관련해 연구하여 업적을 내던 UMass 출신의 Noah Constant라는 좋은 학자가 있었어요. 당시 학위논문 직전에 MIT로 가서 1년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분이 Google로 들어가는 바람에 나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같이 하는 학자가 학계를 거의 떠나다시피 해서 대단히 애석합니다. 그리고 부정(negation), 그러니까 메타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 또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를 했지요. 한국어와 영어의 부정극어 논문을 *Language Sciences*에 내자 Larry Horn 교수가 칭찬하며 *Linguistics and Philosophy*에 내라는 것을 내가 그 EB에 있어 안 냈지요. 그분 책에도 언급했고, 최근 2023년 1월 초순 Denver에서 열린 미국언어학회 총회에서 저에 대한 명예회원 선임 발표에 자신이 공식 찬사(encomia)를 발표하게 돼 자랑스러웠다고 전해 왔습니다. 부정극어는 이어 남승호 교수, 정대호 교수와 같은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했지요. 또 시제(tense), 상(aspect), 양상(modality), 특히 시제 관련 논문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Buffalo 대학교의 이은희 교수가 ‘-었,’ ‘-었었’에 관한 제 주장(‘Temporal expressions in Korean’)을 많이 따라서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에 좋은 논문을 실은 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상의 경우에는, 그리고 근래에 와서 증거성(evidentiality), 또 제가 1978년부터 쓴 사실성(factivity) 문제는 1978년 철학자인 <마음>에 실렸었는데 <마음>이 예산 문제로 바로 폐간이 돼서 최근 그 창간호 창간에 역할을 하신 소홍렬 교수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도서관에 <마음>지 pdf 링크를 제가 김혜숙 전 총장(1978년 이화여대 철학과 반짝 강의 때의 학생)에게 부탁해서 생성해 전국 아무 데에서도 볼 수 있게 했고, 서울대에 제 소장본을 연속간행물 리스트에 올려놓아 원본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화여대에도 정대현 교수가 기증할 예정입니다. 마음을 주제로 여러 분야의 당시 젊은 학자들이 힘을 내 만든 저널이어서 당시의 지적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김경동 교수는 이 회복을 반겨 후학들에게 <마음>의 정신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난 일이 있었고, 당시 제 글의 골자는 우리말에 특이하게 ‘~한 것으로 안다’라는 비사실성 태도 동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몇 년 전에 알타이

제어에서도 사실성 교체, 즉 인식 동사로서 사실성도 되고 비사실성도 되는 인식 동사로서 한국어와 똑같아 보이는 공통점(Lee 2019, *Journal of Cognitive Science*)에 크게 놀랐습니다. 제 연구에서 우리말의 특징을 파고들면서 항상 언어 보편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몬태규 의미론은 문법 의미론 쪽에는 아주 개척적이고 선구적인 업적을 냈지만, 어휘부(lexicon) 쪽에 세밀한 이론이 없다는 게 하나의 약점인데,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에 관한 책이 바로 나오자마자 보고서 감탄하고 그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하는 공동 작업을 강범모 교수나 남승호 교수와 같이 하면서 한참 땀을 흘렸었죠. 한국어에 창조 동사가 풍부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한국어의 특징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승호: 네, 고맙습니다. 정말 몬태규 문법에서 나왔던 형식 의미론(formal semantics)의 골격과 함께, 말씀하신 화용론적 요소(pragmatic elements)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미 형태소(morpheme)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법적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어휘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표상하는 연구들을 한국 언어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어학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 연구들인데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교수님과 함께 참여했던 Soft Science라는 연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결국 한국 인지과학의 태동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부터 한국의 인지과학을 이끌어 오시게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민: 예, 인지과학에 대한 각성은 제가 일찍이 했었고,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방학 때에 2월이면 꼭 서울대 어학연구소 주최로 인공지능과 인지과학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인지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심리학과의 조명한 교수를 만나서 이러한 워크숍을 크게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상의를 해서 대우 공동연구 모임에 인지과학을 옮겨 다른 대학들, 또 다른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뒤를 이어 학회가 창립되고 학회지가 출간되었죠.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운동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Soft Science 프로젝트는 인지과학 운동이었고 거기에 국내 연구에 깃발을 든 분이 심리학의 이정모 교수였습니다. 책도 많이 내고 인지과학에 열정을 많이 바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국내를 책임질 테니 제가 해외를 맡아달라고 결손하게 이야기하던 성실하고 좋은 학자인데 일찍 가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한국어 술어(predicate)에 관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을 모집하는데 포항공대 전산학과의 박찬모 교수(총장도 역임) 같은 좋은 학자도 응모했었는데, 언어학을 전공한 다른 분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서 좋은 학자인데 참여를 못 시킨 게 아직도 조금 섭섭합니다. Chomsky의 인지 혁명(Cognitive Revolution)이라는 초기의 말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거의 동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개념이고 언어학은 결국 마음에 대한 연구 분야이지 않느냐는 각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올해 2023년 여름 UMass의 LSA 여름 학교는 바로 그런 방향을 잘 나타내서 ‘인지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 주제는 Angelika Kratzer의 연구 목표이기도 하죠.

남승호: 올해 UMass에서 LSA 여름 학교 운영을 맡게 되나 보군요.

이정민: 네. 운영보다 연구 길잡이지요.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남승호: 저도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서울대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시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도 거의 인지과학 혹은 협동과정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 서울대에서 언어학, 철학, 심리학, AI 분야, 그리고 신경과학 분야의 학자들을 다 모으셔서 팀을 만드시고 소통을 담당하셨던 것이 대단히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네, 그것이 1993년 무렵인데, 그 전 1983-86년에 제가 어학연구소의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세미나>를 겨울방학마다 연 것이 최초의 공식행사이고, 뒤이어 대우공동연구모임, 인지과학회가 생기고 학술지가 나올 때인데, 제가 느끼기에 인지과학 연구의 내실을 다지려면 결국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생각하게 됐고 이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우선은 학내에서 여러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모아서, 당시 교무 쪽에서 일하던 이태수 교수가 집담회, 즉 콜로키엄을 조성해 토론하는 자리를 지원하기 시작해, 이에 맞춰서 집담회를 계속 열었습니다. 집담회에서는 인지과학 협동과정 커리큘럼에서 사용할 교재를 무엇으로 할지 등을 토론하였는데 모든 분야의 분들이 참 열성으로 임해 주었습니다. 모든 선생님의 도움을 기반으로 제가 교육부에 제안서를 쓰는데 다들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려면 책 한 권을 제안서로 써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서 제안서가 올라가니까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인지과학을 원하는 다른 대학에도 동시에 허가해 주면서 허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를 포함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정찬섭 교수가 외국에서 돌아오면서 교육부 서류를 보고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가을 학기에 곧바로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

니다.

남승호: 아주 발 빠르게 말이죠.

이정민: 그렇죠, 아주 발 빠르게. 서울대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형식이 많다 보니까, 이듬해에 인지과학 협동과정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연세대는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창시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안서는 나한테서 나갔는데 말이지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하지요. 이제 연세대 인지과학과 서울대 인지과학 과정은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하지요.

남승호: 교수님께서 서울대 언어학과에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해외에서 연구하시고 또 교육하신 경험이 많으신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민: 제가 미국 Indiana대 언어학과에서 외부에 발표하러 나갈 때 꼭 항공 여비를 대주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승호: 그때가 그곳에서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계실 때지요?

이정민: 네, 학위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조금 늦춰서라도 이렇게 발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1973년 가을 학기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에서 강사로 영문과의 영문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당시 고영근 선생님은 청강하러 들어오셨을 정도로 열성이셨지요. 해당 수업에서는 Jacobs와 Rosenbaum이 같이 쓴 영어변형문법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주제였지요. 또 국문과 몇 분이 모여 제게 강의를 요청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어떻게든 해외에 발표하러 나가고, 나가서 공부도 더 하는 기회를 계속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LSA의 Linguistic Institute에 자주 나가서 Fillmore 교수의 워크숍에도 참여해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Fillmore 교수는 벌써 언어의 숙어적인 측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열고 언어 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말 경어법, 예를 들어 ‘-하소, -하오’와 같은 어법에 관해 소개했는데, 이런 말투는 40세가 넘어서야 배우게 되는 어법이라고 소개하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언어는 어려서 배우는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니까요.

남승호: 성인의 화법 이런 이야기이죠.

이정민: 그렇죠. 그런 게 있냐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에 또 Barbara Partee의 명강의를 열심히 듣고 했습니다. 또 Arizona에서 Linguistic Institute가 열렸을 때 그분의 양화사 워크숍에서도 우리말의 수 분류사 구문(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에 관해 발표하기도 했었지요. 그분의 세미나 강의도 열심히 듣고요. 그때 세미나 강의의 조교가 지금 MIT 교수인 양상을 주로 연구하는 독일 출신 학자였습니다. 당시 조교였던 그가 MIT의 Semantics Archive를 만들었는데 내 논문을 내라고 해서 그곳에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교였던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정보 구조에 관해서 썼고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으로 양상을 줄곧 연구한 학자 Kai von Fintel이었죠. 그 밖에도 그렇게 자주 나가다 보니까 1991년 UCSC에서 열렸던 Linguistic Institute에서 Structure of Korean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때 USC에서 학위를 하고 있던 Horie가 수강을 하고 또 Ladusaw 교수가 열심히 매번 청강을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UCSB에서는 훨씬 나중에 Linguistic Institute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국어 구조와 의미론, 생성어휘부 이론을 소개했는데, 당시 오사카에서 인지언어학만 배우던 일본 학생이 생성어휘부 이론을 접하고 형식의미론으로 개종을 해서 지금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chigan 주립대에서 열린 Institute에서는 한국어 의미론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시제를 가르치던 Stowell이 내 논문을 보고 Ogihara보다 먼저 영어와 다른 발화시 기준의 내포 과거 시제 체계를 보여줬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승호 교수하고 생성어휘론 계통의 공동 논문을 1998년 자르브뤼肯(Saarbrücken)에서 열린 ESSLLI에서 발표도 하였죠. 돈이 문제여서 제가 혼자 가서 발표를 했지만요. 그때부터 ESSLLI에도 자주 참여하고 그게 서머스쿨을 겸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교수들의 워크숍 발표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서 1988년에는 UCLA에 객원 교수로 나가게 돼서 혹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한국어 프로그램도 조성해서 가르치고, 1971년 Buffalo LSA Institute 때 인연을 맺은 언어학과의 Keenan 교수하고도 논의하면서 교류했습니다. 뒤에 1999년에서 2001년까지 UCLA 언어학과에 방문 교수로 다시 갔고, 2000년에 Keenan 교수가 학과장이었는데, Stowell 교수하고 상의해, 그곳에서 계속 가르쳐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의 역할이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했지요.

남승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니 저도 과거에 제가 참여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귀중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교수님께서 UCLA 한국어 프로그램을 잘 조성하시고 돌아오실 때 제가 유학을 나가게 되었죠. 제가 Keenan 교수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Keenan 교수가 서울대 어학연구소에서 있었던 linguistics tutorial에 초청되어 강연 했었는데 그때 학부생이었던 제가 Keenan 교수를 만나보고 인상을 크게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UCLA로 유학을 나가서 그분한테 배우게 됐었죠. 유학하는 데도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정민: 당시 UCLA의 언어학과장이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를 전문으로 연구한 Schachter 교수였는데, 그때 남승호 교수의 지원에 대해 저와 상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남승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한국 언어학계의 태동부터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언어학계가 국제적인 언어학 연구의 변화와 맞물려 함께 변화되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의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언어 연구의 이론과 방법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언어학의 환경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게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민: 네, 언어 이론의 발전과 AI의 심층 학습에 따른 언어 응용 기술의 빠른 발전 간에 괴리가 확실히 있지요. 그러나 응용 기술의 빠른 발전은 내부 과정의 설명이 결여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AI 쪽의 관계자들도 언어를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생성하는 문장이나 말과 같은 언어자료가 아직은 즉흥적이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방대한 자료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즉각적인 발로에 의한 언어 활동을 포착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UCLA 컴퓨터공학과의 Judea Pearl 교수가 인과(causation) 연구를 선구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의 영향을 많이들 받고 있는데, 그런 인과와도 관련된 언어 연구가 더 깊이 되어야겠다는 자각이 AI 분야 선구자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언어의 뇌파와 뇌 영상 간의 영향 관계, 또 언어의 심리적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같은 주제에 우리 언어학도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여 사회 진출에 활용되도록 방향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한테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옮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의 전공이 뭐냐고 했더니 전기정보공학과라고 하는데 내가 언어학을 한다고 하니까 정민화 교수라는 선배 교수가 언어학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은 좋은 부전공 선택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제는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훌륭한 선배, 동료 또 후학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행복했고, 또 현재도 매우 행복합니다. 송석중 선배, 김진우 교수, 개론서를 같이 쓴 남기심, 이홍배 교수, 의미론 관련 책을 같이 쓴 심재기, 이기용 교수, 구결 선배 남풍현 교수, 언어학 각종 모임에서 또는 전화로 묻고 답하면서 지내는 이예식, 최재웅, 류병래, 김영화, 정대호, 염재일, 김광섭, 한정혜, 최혜원, 송경안, 김창섭, 박진호, 장경준, 정재영, 안대현 교수, 기타 수많은 후학-박철우, 박성현, 이영주, 김윤신, 박소영, 윤지원, 임동식, 최윤희 교수, 임서현, 허세문, 박유경 박사 등, 철학의 수많은 동료 교수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언어학과로 성장시키고 있는 서울대 언어학과 후학 식구들, 또 이루 나열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의 큰 도움을 받아 가며 제가 공동 과제도 수행하고 편집 일도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심사 맡은 논문에 대해서는 그게 허락돼 있지 않은 일인데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대신 그분의 이름을 심사요청 저널에 소개해서 다음부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분한테 심사를 맡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말 직관을 캐느라고 끊임없이 가족 또 주위 분들한테 물어서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제가 명예교수 연구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분야가 다른 분들한테 느닷없이 가서 직관을 묻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지요.

수학자로서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 교수가 서울대 졸업식에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도 친절하라’는 좋은 말을 했습니다. 참 철학자 같은 그런 말인데, 다른 강연에서는 또 사물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언어학을 하는 모든 학생들도 서로 좋은 관계로 지혜로운 생각들을 주고 받고-그것이 인과관계, 논리관계이고, 그것이 바로 지성이지요-파헤치며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남승호: 감사합니다. 최근 언어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 좋은 당부의 말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아쉽지만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후학들에게 큰 도전과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담은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한국 언어학의 기초를 놓으시고 훌륭한 연구와 교육으로 후배들을 길러 오신 선배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기회로 듣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들에 관해 많이 듣게 되었고요. 또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후학들이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훌륭한 언어학자들이 배출되어 한국 언어학계가 세계 언어학의 중심으로 서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네 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어려운 학문 분야라서 일반 사회에서는 인식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의 여러 응용 분야 내지 언어 이론 연구도 앞으로는 사회에서 좀 더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국어 문법 분야는 국학의 일부로서 조금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데 반해서 언어학은 ‘언어를 다 잘하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처럼 언어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학이 중요한 학문 분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승호: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언어학이 일반인들한테 인식되는 상황은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 언어학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야 할 텐데요. 저희가 여러 분야 학자들과 연합하여 공동연구도 많이 하고, 새로운 응용 분야들도 개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 최재웅 교수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 : 김광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kwangsup@hufs.ac.kr

최재웅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어학 전공으로 1979년 2월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 이어 군 복무의 일환으로 육군사관학교 영어 교관으로 선발되어 1982년 6월까지 복무하셨다. 같은 해 9월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한 뒤에 1987년 5월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그 후 귀국하여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3년 반 동안 근무하시고, 1991년부터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봉직하다가 2019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하셨다. 전공 분야는 형식의미론과 화용론, 전산언어학, 코퍼스언어학 등이다. 최재웅 교수님은 주로 의미-통사 분야에서는 배분관계에 대한 핵심 개념 및 이론 정립, 한국어의 언어제약과 관련된 pied-piping 기법 응용, 대화 격률을 이용한 한국어 존대법 통합이론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하셨다. 다른 한편으로 교수님께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전산언어학과 말뭉치언어학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하여 논의해 오셨으며, 최근에는 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딥러닝의 응용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다.

김광섭: 안녕하세요? 한국외대의 김광섭 교수입니다. 한국언어학회에서는 <한국 현대언어학의 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현대언어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순서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재웅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 교수님

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말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재웅입니다. 제가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대담 시리즈의 아홉 번째 대담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학회 회장단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인 데다 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 듯하다는 생각에서 완곡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학회 집행부에서 한국 현대언어학을 개척하신 제1세대의 업적을 제2, 3세대로 성공적으로 전달한 1970년대 학번 언어학회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담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로 선정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배경설명을 듣고서 학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김광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 교수님께서 제2세대를 대표하여 이 대담 시리즈에 참여할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언어학회 집행부에서 마지막 대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인 연구업적도 뛰어나고 국제적인 명망도 높으며 학회의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현대언어학사에서 큰 이정표가 된 사건은 한국언어학회의 창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세대는 한국언어학회를 창립하신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제2세대는 1세대의 영향을 받아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대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세대 초창기 학자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언어학회와의 인연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오래전 일인 데다 관련 자료를 찾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 혹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1975년 가을 제가 아직 학부생일 때였습니다. 한국언어학회가 창립하면서 창립 학술대회가 열린 곳이 제가 다니던 대학이라 아마 포스터를 보고 관심이 생겨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까마득한 위치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논문 발표나 강독을 하시고 또 질의응답을 하시는 여러 모습이 저에게는 새롭기도 하고 눈에 번쩍 띠는 강렬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듬해 2월경으로 기억합니다만 서강대학교에서 며칠간 학회 주관으로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할 때도 참가했습니다. 물론 저야 아직 학부생인 상태였기에 뒤쪽 구석에 앉거나 청중이 많을 때는 뒤쪽에 서서 듣기도 했습니다. 또 발표나 토론 내용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술모임의 열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언어학회를 주도하신 분들이 함께 점화하

고 키우기 시작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당시 뭐가 뭔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던 학부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김광섭: 한국언어학회가 초창기에 벌인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는 'The 1981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SICOL-1981)'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COL-1981은 개최 소식이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행사였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일 때였는데, 일간지에서 SICOL-1981에 대한 특집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SICOL-1981에는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SICOL-1981을 주도하신 분이 한국언어학회 3대 회장이신 한국외국어대학 교의 양인석 교수님이셨고, 학회 총무는 육군사관학교의 김재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복무의 일환으로 육사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사관학교 내 저의 보직이 육사 교수부 교관이자 김재민 선생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재민 선생님께서 학내 일에 집중해야 할 사정이다 보니 학회 일은 상당 부분 제가 적극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한국외대 양인석 선생님을 만나뵙고 학회 준비 작업에서 그때그때 부각된 일거리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마침 당시 제가 근무하던 태릉에서 양 선생님의 이문동 한국외대 연구실까지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외대 이문동 캠퍼스 본관 2층 남쪽 끝에 있는 양 선생님 연구실이 본부 사무실을 겸하고 있어 한동안 그 방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던 일이 새삼스럽습니다.

김광섭: SICOL-1981에서는 어떠한 직책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웅: 특별히 제가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지는 않았고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학회에서 초청한 외국인 학자를 공항에서 만나 호텔까지 안내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가급적 연고가 있는 학회 소속 교수님을 찾아 그 분에게 부탁을 하지만, 부탁할 분이 마땅치 않은 경우엔 다른 임원 선생님이나 제가 나갔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우로 John Ross와 George Lakoff가 함께 입국하였을 때 제가 마중 나갔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학회 기간 중 발표 및 토론 등이 일정대로 무탈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일종의 '5분 대기조' 팀이었던 셈인데, 이익환 선생님과 함께 하거나 저에게 맡겨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자면 그해 8월에 학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어서 학술대회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양 선생님께서 지도학생 여럿과 편집 작업을 하시면서 저도 참여하라고 하셔서, 그 작업에 동참하였습니다.

김광섭: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편집 작업을 하던 양 선생님의 지도학생 중에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최 교수님을 뵈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양인석 선생님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웅: 맞아요. 그때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났지요. 그리고 양 선생님은 물론 그 이전에 열렸던 학회 등에서 가끔 뵙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SICOL-1981을 계기로 양 선생님을 도와드리게 되었고, 양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큰 규모의 국제적인 학회를 개최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유관기관의 실무자급 담당관까지도 폭넓게 알고 계셨는데 그런 점이 저로서는 놀라웠습니다. 뚝심이 대단하고 배짱과 여유가 출중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섭: 당시에는 한국 언어학계가 국제적으로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지요?

최재웅: 예, 그렇다고 보아야겠지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국 언어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ICOL-1981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들, big names를 한꺼번에 초청하여 그처럼 대규모 학회를 열 수 있었던 거지, 한국이란 나라에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운론 학자로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분석에 조예가 깊은 편인 John McCarthy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1983년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DRAM 개발에 뛰어든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McCarthy 교수는 제게 “한국이란 나라에서 DRAM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해”라고 말하더군요. 미국과 일본에서만 성공한 것인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실제로 당시 일반 미국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한국이란 나라는 한국전쟁 정도로만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크게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ICOL, 특히 SICOL-1981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언어학 연구가 ‘국제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광섭: 세 번째 SICOL이 1992년에 개최되었었는데 그때도 관여를 하셨지요?

최재웅: 제가 1991년 3월에 고려대 언어학과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같은 과에 계시는 이기용 선생님께서 한국언어학회 회장으로 SICOL-1992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런 상황에서 이기용 회장님을 도와드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선 이기용 선생님께서 이 인터뷰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기에 제가 더할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기용 선생님께서 학회 임원 선생님들과 부단한 협의를 거쳐 SICOL-1992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드신 후, 각 세부 항목별로 일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광섭: 조금 더 구체적으로 SICOL-1992에서 담당하셨던 일들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저는 프로그램 소위원회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기용 회장님의 큰 구상대로 제 연구실 한쪽에 학회 본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원 한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했고 진행상의 잡다한 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기용 회장님, 정국 총무이사님, 박병수 조직위원장님, 이익환 프로그램위원장님,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선생님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크게 요동치면서 냉전 구도가 점차 풀려가기 시작했기에 소련 및 동구권 학자들을 많이 초청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저는 주로 그 후속 조치 등 실무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소련이 해체되어 가던 무렵이라 해당 나라들의 내적 갈등과 혼란이 심하다 보니 예를 들어 우편 발송과 접수 체계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이메일이나 SNS 등의 소통 방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추후에 들은 이야기로 소련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다른 편지들과 함께 길옆에 쓰레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달해야 할 편지들을 접수한 우체부가 그냥 길옆에다 버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학회를 코앞에 두고 긴밀히 연락을 취해야 할 프로그램 위원회에게는 꽤나 조바심 나는 사태였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동구권 초청 연사들이 늦지 않게 귀국하였고 학회는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무렵부터 저의 건강이 눈에 띌 정도로 악화가 되어 맡은 일들을 생각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적극 밀어 주시던 이기용 선생님을 비롯해 학회 임원 선생님의 기대에 결과적으로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런 면이 마음에 걸립니다.

김광섭: 학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학술지를 발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언어학회에서 발행하는 <언어>지 편집위원장으

로 봉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던 일들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2000년 박병수 선생님께서 한국언어학회 회장이 되시면서 저에게 학회 학술지인 <언어>지 편집위원장직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고 보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향상시켜 볼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이길래 우선 무엇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편집 절차상 논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를 한 단계 추가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술지를 매 호 발간할 때마다, 편집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인쇄소로 보낼 최종본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 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방안이 3인으로 구성된 편집 소위원회를 만들어 매 호마다 편집 인쇄본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한 차례 더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외로 이 단계에서 후보 논문의 내용이나 형식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김광섭: 학술지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좋은 논문이 많이 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논문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학술지의 외형도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를 하시면서 결표지 등 외형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최재웅: 당시 학술지 <언어>의 외형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외형을 바꾸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회장님 및 관련 임원분들과 협의를 거쳐 학회가 재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대략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논문 작성 포맷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에 비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1.2~1.3배로 증가하면서도 읽기에 좀 더 수월한 쪽으로 포맷 및 폰트 등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숙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준전문가급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표지도 보기 좋은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김광섭: 이번에는 주제를 선생님의 대학원 시절로 돌려볼까요?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학 가기 전에 국내 학자 중에서 영향을 주신 학자가 누구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웅: 저는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학부과정을,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고 크고 작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석사 논문은 <Pragmatic presupposition and

pronominalization / 화용적 전제와 대명사화>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였는데 양동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명사화에 대한 Susumu Kuno 선생님의 기능문법적 관점의 분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였습니다.

김광섭: 대학원 당시에 인상이 깊었던 강의를 하나 꼽자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최재웅: 양동휘 선생님의 강의가 생각납니다. 양동휘 선생님의 당시 강의의 특징은 대부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시간마다 사전에 지정해 주신 논문(1~3편)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진행하셨기에 질문이 없으면 10분이고 20분이고 칠판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수강생들의 마음이 가장 불편한 순간이지요. 그러다 누군가 용기 있게 질문을 시작하면 선생님께서는 우선 그 질문과 관련한 논문 내에서의 논의를 정리도 해나가면서 질문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의 답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강의법이 수강생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에게는 공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김광섭: 양동휘 교수님의 강의가 전통적인 방식의 평범한 강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예,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전해 들은 말로는 양 선생님의 동료 교수님 중의 한 분께서는 “토요일 오후면 결혼 적령기인 학생들이 데이트도 해야 할 시간인데 학생들의 그런 귀한 시간을 빼앗으면 추후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한 양 선생님의 열정은 언어학회를 주도하신 1세대 언어학자 선생님들께서 공유하는 특성이었고 이를 각자 적합한 방식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용 선생님께서 이 인터뷰 시리즈에서 전해 주신대로 “마치 종교집단이 [진행하는] 부흥회”라는 비유가 양 선생님 강의에도 잘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학생들끼리는 “양동휘 교수님에게 언어학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광섭: 교수님께서 유학을 하신 UMass, Amherst는 지금이나 그때나 언어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문 중의 한 곳인데, 그곳에서의 유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유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최재웅: 저는 1982년 6월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8월에 UMass, Amherst로 유학을 갔습니다. 마침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친 후 1987년 5월에 귀국하였으니 5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김광섭: 미국 유학 시 강의에 대한 적응은 쉽게 하셨는지요?

최재웅: 유학 초기에는 저는 UMass 박사 과정에 비교적 쉽게 적응했던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로, 첫 학기 강의로 통사론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한 과목이 있었는데 Edwin Williams가 담당 교수였습니다. 그 강의에선 교재도 없었고 사전 읽을거리가 부과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되면 Williams 선생님은 손바닥 크기의 노란 메모지를 윗주머니에서 꺼내서 가끔씩 들여다보며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영어 예문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수강생들이 적극 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강의였습니다. 제 경우엔 한국에서 학부-석사과정 동안 배운 언어학 지식에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식 강의도 접해 보았었기 때문인지 특별한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다면 영어로 제 생각을 조리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여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광섭: 그렇다고 강의가 모두 다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요?

최재웅: 물론이지요. 적응이 쉽지 않았던 강좌 중 하나는 형식의미론을 주제로 한 고급 세미나 과목이었습니다. 언어학과 교수 두어 분, 그리고 교내 철학과와 수학과 교수님 한두 분씩, 근처 대학의 철학과, 수학과 교수 등도 두세 분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수강생 및 청강생이 더해져서 평균 30명 내외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저처럼 논리학적 배경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강의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처럼 배경 지식이 부족한 동료 학생 하나가 저에게 “우리가 수강생인데 전문가급인 교수들을 위한 토론 강의가 돼버린 셈이라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다”며 푸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은 제 경우에는 철학과에서 개설하는 논리학 강의를 들어볼 생각이었으나 한두 시간 청강해 보니 논리식 증명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라 포기했었습니다. 제 학위논문 후반부에서 배분관계를 문장 전체와 결합하는 도출 방식을 제시했지만 논리학자가 보기에는 꽤나 허술하다고 느낄 겁니다.

김광섭: 이번에는 선생님의 연구 활동 쪽으로 화제를 돌려 볼까요? 교수님께서는 형식의미론, 화용론, 통사-의미 인접영역, 전산언어학, 코퍼스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하나 고른다면 무어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최재웅: 저의 연구 이력을 볼 때, ‘독창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박사 논문에서 다룬 배분관계 현상에 대한 연구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1986년 가을 학기에 주로 형성된 아이디어로 양화사 연구와 연결이 됩니다. 약간의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합니다. 몬테규 문법이라고도 불리는 형식의미론의 초석을 세운 몬테규 논문의 제목이 PTQ, 즉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이었습니다. 즉 양화사 문제가 형식의미론의 핵심인 셈입니다. 양화사는 Chomsky 통사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양화사가 보이는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의미적 중의성입니다. 문장 ‘Every kid is chasing a balloon’을 예로 설명하자면 이 문장은 풍선 하나가 날아가고 있고 그 뒤를 아이들 여럿이 뒤쫓아 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또는 아이마다 각기 다른 풍선 하나씩을 쫓아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풍선이 하나만 등장하는 의미를 집단의미(collective reading)라 하고, 반면 아이마다 풍선이 하나씩 있는, 그래서 아이들 수만큼 풍선이 등장하는 상황의 의미를 배분의미(distributive reading)라 부릅니다. 이러한 중의성은 한 문장 또는 명제 내에서 두 개의 양화사가 맺고 있는 구조적 관계로 설명 가능합니다. 분석철학자 러셀이 처음 제안한 이후로 형식의미론 등 언어학계에서는 정설로 간주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구조상 상위에 있는 양화사 QA는 하위에 놓인 양화사 QB에 비해 넓은 작용역(wide scope)을 가지고, 반대로 QB는 좁은 작용역(narrow scope)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의 설명에 대해 저는 ‘배분관계’가 자체로 내부 구조를 가지는 복합 개념으로 볼 때, 보다 명료하고 실제 자료나 직관에 더 잘 부합하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계적 배분이론(relational theory of distributivity)이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배분자(distributive key)’와 ‘배분몫(distributed share)’ 사이의 관계라 정의하고, 그러한 배분관계 의미를 유발하는 것이 대부분 ‘배분자’이지만 여러 언어를 살펴볼 때 ‘배분몫’에 배분관계 유발자(trigger) 표지가 붙어 배분의미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지자가 붙은 명사구를 ‘반 양화사(anti-quantifier)’라 칭했습니다.

김광섭: 당시 UMass에는 Barbara Partee, Emmon Bach, Angelika Kratzer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미론 학자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을 지도교수로 정하셨는지요?

최재웅: Barbara Partee 교수님이었습니다. 학위논문은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실은 제가 위험한 도박을 했던 셈입니다. 형식의미론의 세계적 대가인 분한테, 무언가 설익고 이상해 보이는 주장을 할 때 십중팔구 설득에 실패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준비하면서

보통 때와는 달리 두 페이지짜리 발표 안까지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남짓 제 발표가 끝나자 Partee 교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논문이 몬태규 의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통찰력 있는(quite insightful) 분석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였습니다. 언어학자에게는 언어 현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평소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신 셈이고, 또 선생님께서 대표하는 이론인 몬태규 의미론 울타리를 벗어난 시도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광섭: 교수님의 배분이론에 대한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최재웅: 당시 저는 직장 문제로 좀 서둘러 논문을 완성하는데 몰두하느라 다른 분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적극 구하거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1987년 초에 당시 대표적인 형식의미론 학회인 암스테르담 콜로키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자 곧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내 발표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이 당시 뮌헨대 교수로 ‘격자이론’을 제안한 G. Link 교수였습니다. 형식의미론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논리학자 중 한 분이죠. 저도 제 논문에서 그분의 격자이론을 수용한 뒤 약간 확장하여 활용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인 <Algebraic Semantics in Language and Philosophy>(1997)에서는 제 이론과 분석을 5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광섭: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주요 주장이 Link 교수의 저서에서 소개가 된 이후에 세계 언어학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재웅: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Google Scholar 페이지에 가 보면 인용을 기준으로 한 논문 네트워크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를 학자별로 배열하여 볼 수도 있는데 제 페이지를 열어보면(<https://scholar.google.com/citations?user=HAYDBi4A AAAJ&hl=en&oi=ao>) 2022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제 학위논문이 237개의 연구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오고, 비교적 최근에만 살펴보아도 매년 10개 내외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제 이론이 참고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그 수치가 단순히 각주에서 한 번 언급된 경우와 본문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거나 다루어지는 경우를 동일하게 1회로 다룬다는 등의 한계가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배분관계 연구에서는 제가 주창한 관계적 배분이론 및 관련 핵심개념이 대체로 수용되는 편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대 교수인 Lucas Champollion 은 최근 발간된 리뷰 논문 <Distributionality in Formal Semantics, Annual Review of Linguistics>(2019)에서 제 논문에서 제시된 key와 share 용어 및 개념부터 소개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이겠지만, 저의 관계적 배분이론을 배분관계에 대한 선도적 관찰 및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김광섭: 교수님께서는 <A Theory of Distributivity>를 대표작으로 꼽으셨지만, 다른 논문 <LF-Movement and Pied-Piping>은 세계적 학술지인 *Linguistic Inquiry*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로 한 연구 활동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pied-piping 관련 소논문도 지금까지 200회 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제로 한국어 존대법이나 특수조사 '-만', 한국어 '많다'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화행(speech acts) 분석의 국제적 표준안 작성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언어의 의미적, 화용적 측면을 체계화하는 법을 모색한 것으로 다분히 이론적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초반부터는 통계언어학, 전산언어학, 코퍼스 언어학적 연구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는 딥러닝, 분포의미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섭: 지금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는 좋은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궁금합니다.

최재웅: 제가 정년 퇴임을 한 지 3년여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게 건강을 우선적으로 많이 챙기라고 해서 건강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며 삽니다. 요즈음 제가 주로 살펴보는 언어학적 주제는 존대법 현상입니다. 존대 표현의 분포적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존대법 이론을 구축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수없이 다루어진 주제입니다만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론화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2018년에 대화 격률을 이용한 한국어 존대법에 관한 통합이론을 시론 형태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최근 부각된 딥러닝에 대한 호기심이 큽니다.

김광섭: 교수님과 대담을 하다 보니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웅: 학문 연구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지녀야 할 특질이나 능력, 또는 덕목으로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으나 저는 그중에서도 비판적 글 읽기 능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이론이나 분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완벽한 이론이나 분석은

없습니다. 어디인가에 틈이 있기 마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존 논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과분한 기회를 주신 이민행 회장님을 비롯한 현 학회 운영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뷰 사회를 맡아주신 김광섭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